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





외교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에 관한 연구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박 가 희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정재호

이 논문을 외교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박 가 희

박가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7월

위 원 장 <u>전재성</u> 부위원장 <u>신범식</u> 위 원 <u>정재호</u>

국문 초록

국제정치에서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동맹조약을 활용하며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보편적으로 동맹을 결성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소련과 북한을 제외하고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은 1982년 '독립자주의 대외정책'과 1984년 '동맹 불체결(不結盟)'을 발표하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중국이 보편적인 강대국과 달리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중국의 '동맹 불체결'의 요인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1950년 2월에 소련과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61년 7월에는 북한과 『중조우호협력호조조약』을 맺었다. 중국은 중·북 동맹 결성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동맹도 결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1984년에 동맹 불체결을 선언한 이후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와국방백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였고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동맹을 결성하지 않은 원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인을 검토하였다. 첫째, 동맹 결성으로 인해 주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주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중국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주권 수호에 대하여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 동맹을 결성하면 주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맹을 결성할 경우 동맹 체결국 간에는 상호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며 이러한 양상은 비대칭동맹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중국은 과거 중·소 동맹으로 인해자국의 주권이 침해받았다고 여겼으며 이와 같은 중국의 인식은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이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두 번째 요인으로 동맹 와해의 경험을 살펴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과거 중·소 동맹의 와해를 중심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동맹에서는 동맹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중

국은 중·소 동맹을 통하여 이러한 딜레마를 겪게 되었다. 중국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을 때 동맹국에 기대하였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동맹파트너가 자국에 적대적인 국가와 협력을 도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동맹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했다. 또한 중국은 동맹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제거하려 했지만 이러한 목표 역시 달성되지 않았고, 1960년대 후반에는 소련과 군사적 충돌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은 중국에게 동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데 결코 효율적인 수단이 아님을 인식시켰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은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함의를 준다. 북한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중·북 동맹이 체결된 이후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연루와 방기를 경험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지금까지 중·북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중국과 같이 주권 수호의 의지가 강한 국가는 극심한 위협에 처해 있지 않은 이상, 주권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동맹을 결성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과거에 동맹의 와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국가라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고 이후 동맹조약을 체결할 유인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주권 침해의 가능성과 동맹의 딜레마라는 동맹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에 중국이 동맹 불체결의 원칙에서 탈피하여 동맹을 결성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에 대한 분석은 향후 중・북 관계에 대해 일정 부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중국, 동맹 불체결, 중소동맹, 중북동맹, 주권, 동맹와해

학번: 2010-23049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질문의 규명	1
2. 기존연구 분석	9
a)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에 대한 기존연구	9
b)중·소 동맹과 중·북 동맹에 대한 기존연구	14
3. 연구 설계: 연구 시기와 가설 설정	17
a) 연구 대상 및 시기	17
b) 가설 설정	19
4. 논문의 구성	23
Ⅱ. 주권에 대한 집착과 동맹 불체결	25
1. 동맹과 주권의 관계	25
2. 중국의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	31
3. 중·소 동맹과 주권 침해 ·····	40
4. 소결	47
Ⅲ. 동맹 와해의 경험과 동맹 불체결	51
	51
2. 동맹국으로부터의 군사 위협의 증대	61
3. 동맹 딜레마의 부재와 동맹의 유지	67
4. 소결	72
IV. 결론 ·····	77
1. 연구 요약	77
2. 연구의 함의	80
참 고 문 헌	83

<표 목차>

〈표 2-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권'관련 발언 내용 및 빈도, 1954-2012 36
<班 3−1>	소련의 '방기'에 대한 중국의 발언 60
<₩ 3-2>	중·북 관계에 대한 중국 외교부 발언 68

<그림 목차>

く그림	1-1>	1949-201	2년 강1	대국의 여	양자동맥	뱅 체결	수 ·	• • • • • • •	• 2
<그림	2-1>	중국공산당	전국대.	표대회	'주권'	발언	빈도,	,	
		1956-2012	;	•••••				••••	34
<그림	2-1>	전국인민대표	표대회	'주권'	발언 1	빈도, 1	956-	-201	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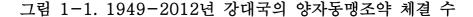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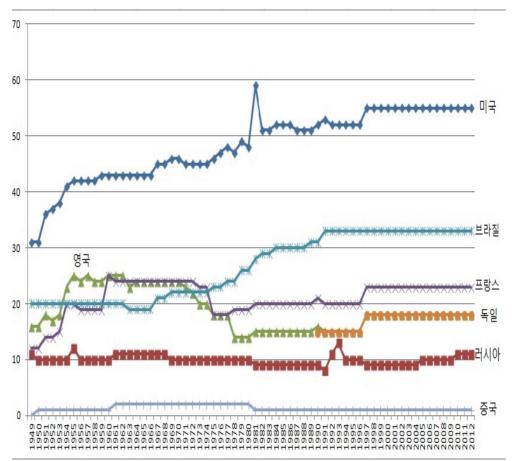
1. 연구질문의 규명

대개 무정부적 질서로 간주되는 국제관계에서 국가는 생존과 안전의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하며, 여기에는 대체로 '내적 균형' (internal balancing)과 '외적 균형' (external balancing)이 포함된다. 내적 균형은 군대의 재무장이나 군비 증강을 통해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지칭하며, 외적 균형이란 동맹 결성이나 집단안보체제에의가입 등 외부 역량과의 연계를 통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1) 특히 내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적으로도 상대적 지위가 취약한 약소국의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위해 공식적인 방위동맹을 결성하는 경우가 많다.2) 강대국들에게도 동맹은 보편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강대국은 동맹이라는 기제를 통해약소국을 관리하는 레버리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¹⁾ 동맹(alliance)이란 국가 간의 공식적 연합으로 동맹국들의 안보를 증진시키거나 세력의 확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집단안보체제(collective security)는 체제 내 어떠한 국가가 실행하는 침략 등에 대해서 다른 참가국이 협력하여 그 침략 등에 대항할 것을 약속하고, 국가의 안전을 상호 집단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동맹의 경우 잠재적 적국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지만 집단안보체제는 명백한 적을 상정하지 않는다.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엮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서울: 아카데미아 리서치, 2002), p. 370;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6-16; Marina S. Finkelstein and Lawrence S. Finkelstein, "Introduction," Marina S. Finkelstein and Lawrence S. Finkelstein(eds.), Collective Security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mpany, 1966), pp. 1-3.

²⁾ Michael Handel, Weak States in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lass and Company Limited, 1981), p. 134.





출처: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ATOP)과 Correlates of War(COW)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4)

³⁾ 본 연구는 6개 강대국의 동맹국 개수를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ATOP)과 Correlates of War(COW Datasets)를 통해 파악했다. ATOP과 COW가 2012년까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도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살펴봤다.

⁴⁾ 동맹에 관한 ATOP의 자료는 COW의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맹결성 당시 두 국가 모두 독립 국가였다는 조건에 만족하는 사례에 한해 COW에서 누락된 데이터를 보완했기 때문에 ATOP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ATOP은 동맹의 조약 내용에 근거하여 동맹을 defense, offense, neutral, nonagg(ression), consul 등 5개로 분류했다. 그림 1은 defense pact의 성격을 띤 동맹만을 포함한 것이며, 그림 1에서 제시한 7개 국가는 COW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강대국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 중 일본은 자국의 군대를 보유하는 정상

은 최소 10개 이상의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강대국이 채택하고 있는 동맹정책을 중국이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미국과 브라질의 경우에는 동맹국 개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영국,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그 수가 조금씩 변화는 했지만 최소 14개 이상의 국가와 동맹을 유지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역시 소련의 해체 이후 집단안보체제인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와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을 통해 재차 동맹을 결성하면서 구소련이 체결했던 동맹 조약의 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소련과 맺은 것과 1961년부터 지금까지 북한과 동맹조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다. 이로써 중국의 동맹 정책이 여타 강대국들과 분명히다른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이 1980년대 이후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지 않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중국 동맹의 역사는 1950년 2월 소련과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차관과 기술 원조를 받아 제1차 5개년 계획(第一個五年計劃)을 실시하는 등 밀월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중·소 관계는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이후 두 국가 간의분쟁은 점차 격화되었으며 결국 1960년 중국과 소련은 공식적으로 대립했다. 1960년대 내내 중·소간의 이념논쟁은 지속되었으며, 1966년 중국에서 발생한 문화대혁명은 중·소 관계를 한층 더 악화시켰다.5) 적대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ATOP이 동맹의 조약 내용에 따라 5개로 나는 기준은 http://atop.rice.edu/download/ATOPcdbk.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COW의 강대국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은 http://www.correlatesofwar.org/COW2%20Data/SystemMembership/2011/State%20FAQ.pdf 에서 볼 수 있다.

⁵⁾ 문화대혁명 시기에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기본노선을 둘러싸고 중국공산당과 소련 공산당 간의 대립이 있었다. 마오는 중국공산당만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지도자 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했으며 소련은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비난했다. 이는 중·소 관계를 악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적인 관계가 유지되다가 1969년 우수리(烏蘇里)강 유역 쩐바오다오(珍寶島, Damansky Island)에서 중국과 소련 사이에 군사충돌이 발생했다. 이는 중·소간 동맹이 갖는 실질적 의미를 상실시켰다. 결국 중국은 1979년 4월 동맹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소련에 통고했으며이로써 중·소 동맹은 동맹 체결시 약속했던 30년의 유효기간만을 채우고 1980년 2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던 것이다.6)

중국과 북한은 1961년에 방위동맹의 성격을 포함한 '중국 조선 우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이하: 중·조 조약)'을 체결했다.7)그러나 중·북 동맹은 중·소 동맹과 달 리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동맹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총 6개 항으로 되어 있는 중·조 조약을 살펴보면, "쌍방이 공히 합의하지 않 는 한 폐기되지 않는다" (제7조)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 측이 공히 공식적으로 중·조 조약을 폐기하지 않고 있으며 조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서로 상이하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8)

沈志華, 『中蘇關係史綱: 191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pp. 382-386.

⁶⁾ 중국이 소련과 동맹조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中華人民共和國 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 第二次會議文件』,(北京: 人民 出版社, 1979), p. 44.

⁷⁾ 조약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 소련이 체결한 조약에는 '동맹'이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중국이 북한과 체결한 조약에는 '동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최명해의 연구에서 중·북이 체결한 조약 원문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했으나 '동맹'이란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p. 166-188. 중·소 동맹 체결과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나 조약의 이름에서 '동맹'이란 단어를 포함시켰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1950년 중국공산당과 소련이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을 체결하기 전에 1945년 국민당과 소련이 체결한 '중소우호동맹조약(中蘇友好同盟條約)'에서 이미 '동맹'이란 단어를 사용했으며 1950년의 조약은 1945년의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단어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소와 중·북이 체결한 두 조약에서 '동맹'이란 단어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동맹 체결과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제2장을 참고할 수 있다.

⁸⁾ 중·조 조약의 공식적 명칭에 '동맹'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북이 동맹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제2조 자동군사개입 조항 때문

1961년의 중·북 동맹을 마지막으로 중국은 더 이상 어느 나라와도 공식적인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중·소 동맹은 1980년 2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중국의 동맹에 대한 이와 같은태도는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에서 후야오방(胡耀邦)이 최초로 "독립자주외교정책(獨立自主的外交政策)"이라는제목 하에 관련된 정책 내용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독립자주외교 노선이가시화되기 시작했다.9)당시 후야오방이 발표한 정치보고에서는 동맹이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결코 어떠한 강대국이나 국가집단에 절대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강대국의 압력에도 굴복하지않을 것"을 천명했다.10)이후 1982년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헌법 수정안에도 '독립자주의 대외정책' 노선의 내용이 포함되었다.11)'동맹 불체결(不結盟)'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82년 8월

이다. 그리고 김일성은 중·북 양국 간에 「중·조 조약」 비준서가 정식 교환된 직후 개최된 1961년 9월 11일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조·소, 조·중 조약」을 방위적이며 억지적 성격을 띤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외적 위협에 대항하는 '균형'동맹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1961년 9월 11일),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I (조선로동당)』,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 pp. 309-310; 최명해,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2009), p. 19, 179.

⁹⁾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全面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二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北京: 人民出版社, 1982), pp. 45-56. 물론 "독립자주"라는 단어가 1982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1982년 이전 시기의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해당 시기 지도자인 마오쩌 등과 당샤오핑의 발언 등을 검색해 보면 "독립자주"를 언급된 경우를 찾아볼수 있다. 당시 "독립자주"가 사용된 내용들을 살펴보면① 중국은 "독립자주"적인 국가이다.(1956년 9월 15일 중국공산당 제8차 전국대표대회 정치보고)② "독립자주, 자력갱생"이 함께 등장하며 사회주의 건설 또는 경제발전의 구호(1963년 12월 3일 제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 1969년 4월 1일 중국공산당 제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1975년 1월 13일 제4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인 것이다. 즉, 1982년 전에는 "독립자주"가 등장했지만 1982년 이후와 같이 외교정책의 기조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¹⁰⁾ 후야오방의 정치보고 하루 전인 1982년 9월 1일 덩샤오핑(鄧小平)은 제12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사를 통해 "독립자주, 자력갱생은 과거든 미래든 우리의 불번 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독립자주'를 언급했다. 『人民日報』, 1982년 9월 2일.

외교부장 황화(黃華)가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Javier Perez de Cuellar)UN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며, 패권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한 것에서였다.12) 1984년 덩샤오핑(鄧小平)이 피게이레두(Joāo Baptista de Oliveira Figueiredo)브라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중국의 대외정책은 독립자주이며,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동맹'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13)또한 "중국은 '미국 카드'나 '소련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가 '중국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발언했다.14)이러한 중국의 동맹 불체결 원칙은 지금까지도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¹¹⁾ 기존연구에서 동맹 불체결은 독립자주외교정책의 일환으로 독립자주가 동맹 불체결이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독립자주외교 정책은 동맹 불체결 시행 이후에 실현되었으며, 타국과의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진정한 의미의 독립자주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오쩌둥 시기의 동맹 결성이 독립자주외교정책과 상호 모순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로는 葉自成, 『新中國外交思想: 從毛澤東到鄧小平--毛澤東,周恩來,鄧小平外交思想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1), pp. 153-161. 동맹 불체결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독립자주외교정책이 동맹 불체결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張明明, "十一屆三中全會後中國對外政策的調整," 『國際關係學院學報』,第1期(2012), pp. 71-76; 吳興唐, "國際形勢動蕩多變下中國外交應堅持"三不"原則," 『當代世界』,第4期(2012), pp. 52-53; 顏永琦, "從結盟到不結盟: 20世紀80年代初中國外交政策調整背景探析," 『黨史研究與教學』,第2期 (2009), pp. 38-44; 周承超,陳琲,朱超南, "獨立自主是鄧小平對外戰略的脊梁," 『理論建設』,第5期(1997), pp. 49-53; 孟慶英, "鄧小平處理對外關係的策略,"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第3期(1995), pp. 1-5.

^{12) 『}人民日報』1982년 8월 21일.

¹³⁾ 不結盟政策을 '비동맹정책'이 아닌 '동맹 불체결'로 명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에서 '不'은 '非'와 달리 의지, 심리상태, 행위 또는 가능성등을 부정할 때 사용된다. '非'는 "~이 아니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내포하며,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시비(是非)를 논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원래의 뜻을 더욱 정확하게 옮기고자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비동맹'보다는 '동맹 불체결'을 사용한다. 중국어의 의미 구별은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辭典編輯室(編), 『現代漢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p. 109, 393.

¹⁴⁾ 鄧小平 著,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 56-57.

1982년 '독립자주의 대외정책'과 1984년 '동맹 불체결'의 담론이 나온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문건에는 매년 '독립자주의 대외정책'과 타국에 결코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국가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15) 예를 들면 1986년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자오쯔양(趙紫陽) 국무원 총리가 "중국은 결코 어떤 초강대국에게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중 어느 한쪽과 동맹 또는 전략적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동맹 불체결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혔다. 1987년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도 자오쯔양은 재차 "중국은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초강대국과 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며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 각 국가와 우호적이며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나간다"고 발표했다.16)

¹⁵⁾ 중국에서 '不結盟'은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동맹 불체결' 외에도 비동맹 운동(Non-Alignment Movement: NAM)을 '不結盟運動'으로 표현하면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은 비동맹운동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이나 공식회의 문건 등을 통해 드러나며 중국이 비동맹운동에 참여하는 국가를 지지하거나 그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1991년이 되어서야 비동맹운동에 옵저버 (observer)로 비동맹운동에 가입했다. 1984년 동맹 불체결이 비동맹운동으로부 터 영향을 받았다는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즉, '不結盟'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며 비동맹운동과 중국의 '동맹 불체결' 또는 '독립자주의 외교정책'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1991년 '비돗맹운동'의 옵저버가 되기 이전까지 비돗맹운동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 았음은 물론 공식적으로도 '비동맹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만 발언했다. 예를 들면, 1961년 9월 저우언라이는 말리 경제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비 동맹국가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발언했다. '비동맹운동'과 '동맹 불체결'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시기 설정 부분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 명함. 저우언라이의 '비동맹운동' 지지 발언은 中共中央文獻硏究室 編, 『周恩 來年譜』, (北京:中央文獻出版社, 1998), p. 941;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鄧 小平年譜(1975-1997)』,(北京:中央文獻出版社,2004), pp. 73-74.

^{16) 1986}년 3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자오쯔양 총리는 '제7차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關於第七個五年計劃的報告)'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http://www.gov.cn/test/2008-03/24/content_927136.htm (검색일: 2013년 5월 13일); 1987년 3월 25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자오쯔양은 '강대국과 동맹을 결성하지 않을 것'을 재차 언급했다. http://www.gov.cn/test/2006-02/16/content_200857.htm (검색일: 2013년 5

'동맹 불체결'은 강대국과의 동맹 조약은 물론 약소국과도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 또한 내포하고 있다. 약소국과의 동맹 결성에 대해서 덩샤오핑이 1982년 8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으며, 이는 어느국가와도 동맹을 결성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제3세계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중국은 제3세계의 일원일 뿐이다." 17) 또한 1990년 12월 "제3세계의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우두머리(當頭)가 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은 절대 우두머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중국의근본적인 정책이다. 중국이 우두머리를 할 수도 없으며, 이를 수행할 능력도 부족하다. … 중국은 영원히 패권국을 칭하지 않을 것이며, 국가들의 우두머리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18) 즉, 중국은 강대국과 동맹 또는 전략적 관계를 맺지 않음은 물론 약소국이나 제3세계국가들과도 동맹을 결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19)

중국은 1992년의 제14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와 1997년의 제15차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맹 불체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1996년 '신안보관(新安全觀)' 개념을 제시함과 동시에 세계 어떤 나라와도 동맹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²⁰⁾ 또 1998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발간된『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에서도 '동맹 불체결'이 매번 언급되고 있다.²¹⁾ 따라서 1982년과 1984년에 노

월 13일).

¹⁷⁾ 鄧小平 著, 『鄧小平文選(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416.

¹⁸⁾ 鄧小平 著,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363.

¹⁹⁾ 郭偉偉, "論新時期不結盟的外交戰略," 『四川黨史』, 第2期 (1999), pp. 47-51; 齊鵬飛 主編, 『中國共産黨與當代中國外交(1949-2009)』,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10), pp. 120-122.

^{20) 1992}년 10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4차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된 '동맹 불체결'에 관한 내용은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十四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冊)』, (北京: 人民出版社, 1996), pp. 35-36; 1997년 9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쩌민이 발표한 공작보고는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十五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冊)』, (北京: 人民出版社, 2002), p. 42; 신안보관에 대해서는 任晶晶, "20世紀90年代中期以來中國新安全觀的理論與實踐," 『理論學刊』, 第1期 (2012), pp. 87-92.

²¹⁾ 중국의 국방백서는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된 중국의 '독립자주외교정책'과 '동맹 불체결'의 원칙은 오늘날까지 고수되고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타 강대국들의 행태와 상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1980년대 이후 어느 나라와도 동맹을 맺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2. 기존연구 분석

본 연구의 핵심은 "1980년 이후 중국의 '동맹 불체결' 시행요인"에 대한 분석이다. 중국의 동맹 불체결 원칙에 대한 기존연구는 크게 (1) '동맹 불체결'원칙 제시와 관련하여 1980년대 중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요인을 밝힌 연구, (2) 과거 중·소 동맹과 중·북 동맹에대한 것으로 중·소 동맹의 경우 동맹의 결성 또는 와해의 과정 및 요인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반면 중·북 동맹의 경우 자료 부족의 문제로전반적인 중·북 동맹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으며, 특히 양국의 동맹 체결 과정에 대한 연구 및 자료는 비교적 희소하다.

a) 1980년대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에 대한 기존연구

1980년대 중국의 동맹 불체결 시행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원인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이 탈이념화와 국제질서에 대해 재인식하면서 동맹 불체결을 시행했다.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대외정책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적과 친구를 구분했지만, 1980년대 이후 탈이념화와 함께 실질

http://www.mod.gov.cn/ (검색일: 2013년 3월 20일).

²²⁾ 가장 최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가 발표한 보고에서도 중국의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정책' 노선을 확인할 수 있다. 『人民日報』, 2012년 11월 17일.

적인 국익을 도모하는 외교노선을 추구했다.

장이핑(章一平)은 1980년대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른 인식 변화가 대외정책의 노선 변경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외교정책의 전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 1980년대이며 여기에는 이데올로기의 구속에서 벗어난 전방위 외교노선 선택, 독립자주의 동맹 불체결 및 실사구시의 외교정책 등의 변화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23) 리차이이(李才義)는 중국의 국제형세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전쟁과 혁명의 시기에서 평화와 발전의 시기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24)

동맹 불체결의 원인이 국제질서에 대한 재인식과 탈이념화라고 설명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1980년대 이후 중국외교정책의 변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1980년대 이전과 이후, 무엇이변화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비교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1980년대이전과 달리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바뀌면서 전반적인 국제질서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이에 따라 중국 역시 재인식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당시 국제정세에 따라 정황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며 중국 동맹 불체결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중국이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 유리한 평화로운 국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동맹 불체결을 시행했다. 리바오쥔(李寶俊)은 공산당 제11차 삼중전회 이후 중국 외교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개혁·개방 이후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다원화 외교 및 경제이익 추구가 중국외교정책의 우선순위가 되었다.²⁵⁾ 동

²³⁾ 章一平, "20世紀80年代以來中國外交的戰略性調整," 『深川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6期(2002),pp. 80-85.

²⁴⁾ 李才義, "20世紀80年代中國外交政策調整與現代化建設關係淺論," 『黨史研究與教學』,第6期(2002), pp. 43-47; 이 외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치는 연구로는 吳獻斌, "中國安全戰略的特點及其成效," 『當代亞太』,第8期(2000), pp. 31-36. 조영남,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지속",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서울: 나남, 2009), pp. 219-274.

²⁵⁾ 李寶俊, "黨的十日屆三中全會以來中國外交的特點," 『敎學與研究』, 第11期 (1998).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다른 연구로는 謝靑, 杜麗娜, "論鄧小平獨立自

맹 불체결은 결국 장기적으로 대외개방을 시행하고 다른 국가와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겨진 다. 냉전 시기 특정 국가와 동맹을 결성하면 자국과 타국의 관계가 친구 또는 적의 관계로 명확하게 나뉘게 된다. 이는 경제발전에서 필요한 우 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음은 물론 일부 선진국들과의 교류에도 장애 가 될 수 있다. 또한 안보위협이 상존해 있는 상황은 국가로 하여금 경 제발전 또는 사회 건설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다. 즉, 중국은 갓 시작한 개혁·개방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길 원했으며, 경제발전과 사회 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만들고자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다.²⁶⁾

이들 연구는 경제발전과 동맹 간의 상관관계를 논한 것으로 경제 및 사회발전 또는 현대화를 가속화시키고자 동맹 불체결을 시행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중국과의 상반되는 사례로 일본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십분 활용하였으며, 오히려 안보를 보장받음으로써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27)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연구들은 상반되는 사례들도 존재함에 따라 가설의 일반화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동맹 불체결 정책이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노정된다.

셋째, 국제체제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소련 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중국은 미국과 소련 중 한 국가와 동맹을 맺을 유인이 줄어들었다. 장주윈(張竹雲)은 미국과 소련 두 국가의 관계는 물론 중국 역시미·소와의 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어느 한 국가와 동맹을 결성할 필요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한다. 28) 양대 진영의 초강대

主和平外交政策的思想," 『河南教育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 (2002), pp. 60-63.

²⁶⁾ 朱聽昌,宋德星, "論改革開放以來中國獨立自主和平外交政策的新發展," 『世界經濟與政治』,第2期(1999),pp. 5-9;方海平, "論鄧小平"獨立自主,不結盟"外交戰略的創新," 『世紀橋』,第6期(2009),pp. 15-17.

²⁷⁾ 張景全, "結盟對國家崛起,發展的影響: 以日本爲例的歷史分析," 『日本學刊』, 第3期 (2006), pp. 52-64.

²⁸⁾ 張竹雲, "試論中國對不結盟戰略的新發展," 『長春師範學院學報』, 第4期 (2001), p. 4; 이와 유사한 논의로는 Jonathan D. Pollack, "China and the

국인 미국과 소련은 상호간 핵무기를 비롯한 전략무기의 감축을 제안했으며,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중국은 동맹 불체결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탄이산(覃軼珊)은 1980년대 중국은 1960년대 중반 이전까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과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소련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서 벗어나면서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한 상태에서 특정 국가와 동맹을 맺거나 전략적 관계를 맺을 경우 국제질서의 평형을 유지하기 힘들며 결국 국제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므로 특정 강대국과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동맹 불체결의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29)

중국이 미국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과 동시에 미·소간의 긴장 완화로 인해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다는 연구들의 경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한다.30) 또한 미·소에게 느끼는 위협의유무로 중국의 동맹 불체결을 설명하기에는 1980년대 중국은 여전히 소련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1982년 3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소련 총서기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사실상 공식적으로 중·소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시점은 1989년 5월 고르바초프가 중국을 방문한이후였기 때문이다.31) 따라서 소련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중국이 동

Global Strategic Balance," Harry Harding (eds.),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 107-145.

²⁹⁾ 覃軼珊, "新中國外交聯盟觀的調整及其當代啓示," 『江西科技師範學院學報』, 第10期 (2009), p. 33; 이와 유사한 논의로는 Harry Harding, "China's Changing Roles in the Contemporary World," Harry Harding(eds.),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 177-223.

³⁰⁾ 미국, 소련과 중국 세 국가의 관계를 전략적 삼각형(strategic triangle)으로 설명하는 연구로는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pp. 484-515.

^{31) 1980}년대 초 중국이 소련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중·소 관계 정상화과정에서 중국이 소련에게 세 가지 장애요소를 제거하라고 요청한 대화에 서 알 수 있다. 세 가지 장애란 ① 중·소 국경지역과 몽골에서 소련군을 철수할 것, ②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할 것, ③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서 철수하도록 권

맹 결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32) 또한 미·소 간 관계 개선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33)

중국의 동맹 불체결 시행의 요인이 위협의 소멸 또는 감소로 설명되기에는 1960년대와 1980년대 중국의 외교정책을 설득력 있게 분석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1960년대 중국은 '반미반소(反美反蘇)'의외교노선을 채택했으며 소련과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극대화되어 있었다. 당시 중국은 미·소로부터 동시에 가해지는 위협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거나 소련과의 동맹을 지속하기보다는 미·소 양국과의 긴장을 늘려가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34)

고할 것 등이다. 이후 소련은 약 7년에 걸쳐 중국이 요구했던 세 가지 장애 요소를 제거해 나갔다. 錢其琛 著, 『外交十記』,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3), pp. 7-15; 1980년대 이후 중·소 간에 국가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다룬 연구로는 馬敍生, "結盟和對抗都不好: 80年代的中蘇關係," 『世界知識』, 第12期 (2000), pp. 36-39.

³²⁾ 월트(S. Walt)는 동맹이 국가 간에 공동의 외적 위협이나 우세한 세력에 대처하고자 군사적 원조를 약속하는 것이며 동맹 조약의 체결 목적은 국가의 안보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맹은 타국의 능력에 의해서 결성되는 것이 아니며, 적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17-49. 동맹의 형성 혹은 해체의 요인을 '위협' 변수로만 설명하는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Brett Ashley Leeds and Burcu Savun, "Terminating Alliances: Why Do States Abrogate Agreement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 (2007), pp. 1118-1132 가 있다.

^{33) 2010}년 중국 국방백서를 살펴보면, 중국은 여전히 외부의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중국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자 위협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특히 미국이 대만에게 지속적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자국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체제가 중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요소라고 여긴다. 2011년 3월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발표한 '2010년 중국 국방백서'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gov.cn/jrzg/2011-03/31/content_1835289.htm (검색일: 2013년 5월 12일).

³⁴⁾ 이 외에도 위협의 유무만으로 동맹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로

b) 중·소 동맹과 중·북 동맹에 대한 기존연구

중국의 전반적인 안보정책이 아닌 중·소 동맹과 중·북 동맹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중·소 동맹에 대한 연구들은 과거 외교기록들이 공개되면서 꾸준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중·소 동맹의 관계 악화 또는 동맹 종결의 원인 등에 주안점을 둔다. 선즈화(沈志華)는 중·소 동맹의 와해 원인이 중·소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두 국가가 추구하는 국가 이익이 상이해짐에 따라 발생한 의견마찰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 동맹에서 긴장이 형성되기 시작한시점을 1958년이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당시 사회주의국가 간 고착화된 불평등 관계로 인해 여타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소련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중·소 간 관계 악화가 결국 중국과 미국 간 관계 개선의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35)

류커밍(劉克明)은 과거 중·소 동맹의 경험으로 인해 동맹을 결성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가 있다. 현실주의 학자들의 예상과 달리, 소련 해체 이후 나토가 느낄 수 있는 위협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성주의 학자들은 기존 동맹의 위협이 소멸되었지만 여전히 동맹이 유지되는 이유가 동맹 체결국 간에 새로운 정체성과 이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동맹 체결국 간의 정체성과 이익의 공유가 설령 더 이상 기존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동맹을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³⁵⁾ 沈志華, "中蘇同盟破裂的原因和結果," 『中共黨史硏究』,第2期(2007), pp. 29-42. 이 외에도 선즈화는 중·소 간의 동맹 관계가 와해된 원인을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설명했다. 1958년 전먼다오(金門島) 포격사건과 관련하여 중·소관계의 분열을 설명하는 연구는 沈志華, "1958年炮擊金門前中國是不告知了蘇聯," 『黨史博覽』,第1期(2005), pp. 42-45; 沈志華, "炮擊金門: 蘇聯的應對與中分岐蘇," 『歷史教學問題』,第1期(2010), pp. 4-21; 1949-1960년 기간 동안 핵무기 기술 이전과 관련하여 중·소 관계의 동학을 분석한 연구로는 沈志華, "援助與限制: 蘇聯與中國的核武器硏制(1949-1960)," 『歷史硏究』,第3期(2004), pp. 110-131. 이 외에도 중·소 관계에서 발생한 각종 이슈와시기에 따른 변화를 다룬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沈志華, 『中蘇關係史綱: 191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pp. 111-540.

하지 않고 대신 현재 중국이 추구하는 선린 우호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적인 중·러 관계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소 간 이데올로기 논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국제 공산주의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모순들이 중·소간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36)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한계점은 다양한 각도에서 중·소 동맹을연구하고 있는 만큼 중·소 동맹의 와해 원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1980년대 시행한 동맹 불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북핵 위기 및 중국의 대북 경제원조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하지만 중·북 관계에 대한 대다수 연구들은 냉전 이후의 사건들을 분석하거나 또는 1950년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참전 등과 관련된 것이다. 1961년 결성한 중·북동맹과 관한 연구는 비교적 적다.37) 이는 중·북동맹에 대한 자료들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중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 연구에 일정 부분 함의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최명해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중·북동맹이 결성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중·북동맹의 경우 중국이 강대국인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결박의 기능을 행하고자 동맹조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동맹을 결성하기 이전부터동맹조약이 성립되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38) 하지만 이 연구는 중국과 북한의 동맹 관계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중·북동맹의 동학을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동맹 불체결의 요인을 밝히는 데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즉,중·북동맹이 중국의 동

³⁶⁾ 劉克明, "中蘇關係40年的歷史教訓," 『東歐中亞研究』,第1期 (2000), pp. 64-68.

³⁷⁾ 냉전시기 중·북 양자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陶常梅, 李曉光, "'一條線'外交政策下的中朝關係," 『安徽教育學院學報』, 第5期 (2006), pp. 30-33; 龐朕, 楊鑫宇, "從同盟到夥伴: 中朝關係的歷史演變," 『重慶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 (2008), pp. 84-88. 전반적인 중·북 관계를 다룬 연구로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pp. 123-264 가 있다. 그러나 이는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다소 차이가 나며 이종석의 연구는 전반적인 중·북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³⁸⁾ 최명해, 2009, pp. 37-320.

맹 불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논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상술한 기존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동맹 불체결'의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사실상 매우 적은 편이다. 특히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연구가 거의 없고 중국어논문의 경우 중국의 '동맹 불체결'에 천착하여 그 요인을 분석하기보다는 1980년대 중국 외교정책의 특징인 '독립자주적인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비록 동맹 불체결이 독립자주적인 외교정책과 매우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 독립자주적인 외교정책이 아닌 동맹불체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매우드물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여타 강대국들과 달리 동맹을 결성하지않았기 때문에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수로 진행되어 온 '동맹 불체결'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둘째, 중국이 다수의 강대국들이 채택하는 동맹체계를 선택하지 않는 요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소위 'G2(Group of 2)'라고 불리면서 미국과 함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강대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타 약소국과 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찰해 볼 수 있으며 현재 중국의 유일무이한 동맹국인 북한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일정 부분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동맹 불체결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인 중국의 대외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보다 자세하게 중국의 안보정책을 살펴볼 수있는 주제라고 여겨진다. 중국이 동맹의 결성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재 중국이 어떠한 안보환경에 처해있는지를 함께 진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가 거시적인 시각으로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았다면 이와 차별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변수들을 통해 동맹 불체결 정책이 시행된 원인을 실증적으로 밝히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설계: 연구 시기와 가설 설정

a) 연구 대상 및 시기

동맹은 공식적인 조약에 근거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결성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조약의 유무는 국제 조약의 구속력이나 효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약이 부재한 경우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39) 따라서 체임버스(M. Chambers)가 제시한 것처럼 중국과 제휴(alignment)관계를 맺었던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과북베트남은 제외시킨다.40) 이 국가들은 자국이 직면한 위협에 대처하고자 중국과 제휴관계를 맺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 조약이 부재한 까닭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41)

구체적인 연구 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2012년으로 설정한다.

³⁹⁾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체결한 국제법 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이다. 국가 간의 합의인 조약이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당사국이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의도하였기 때문이다. 발효 중의 모든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며 당사국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6조). 조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 국가는 당해조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며 아니 되며, 상대국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동 제27조). 또한 조약당사국은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조약을 국내적으로 실시할 의무를 진다(동 제26조). 이처럼 공식적인 조약이 있는 동맹의 경우 동맹 체결국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개정판)』, (서울: 박영사, 2012), pp. 240-312; 김현수, 이민효, 『현대국제법』, (서울: 연경문화사, 2005), pp. 220-231.

⁴⁰⁾ 동맹 조약은 동맹 체결국 간 준수해야 할 의무나 공약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정확성을 가미하는 데 의미가 있다. 동맹과 달리 제휴관계는 정책적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최명해, 2009, pp. 15-16.

⁴¹⁾ 체임버스(Chambers)는 박사논문에서 중국과 제휴관계를 맺을 나라 중 캄보디 아와 태국을 사례로 삼아 그 요인을 분석했다. 두 국가와 제휴를 맺은 시기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캄보디아와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제휴관계였으며, 태국과는 1979년부터 1991년까지 제휴를 맺었다. Michael R. Chambers, Explaining China's Alliances: Balancing against Regional and Superpower Threats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2000), pp. 45-472.

1980년대 이후가 본 연구의 시기로 타당성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전에는 자주독립정책과 동맹 불체결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1980년대부터 이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1961년 7월 중국은 북한과 동맹 결성 이후 추가적으로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지 않았으므로 연구 시기가 1961년 이후로 설정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1960~1970년대 중국은 자국이 동맹을 결성하고 있음을 시인했으며 이는 1961년 중·북 동맹조약 결성 이후 '동맹 불체결' 시행에 따라 동맹을 더 이상 맺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해 준다.

1964년 10월 필리핀 언론대표단과의 대화에서 저우언라이가 "중국과 필리핀은 모두 동맹체결국이다. 우리(중국)는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맺고 있으며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에 참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1975년 3월 가이아나의 총리 포브스 버넘(Forbes Burnham)이 중국을 비동맹국가(不結盟國家)로 정의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에 대해 저우언라이가 "중국은 형식적으로 여전히 소련과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동맹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다.42)

이처럼 중국 정치지도자들의 발언들을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의 시기가 1961년이 아닌 1980년대 이후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비록 1960년대와 1970년대 중국지도자들이 간헐적으로 '동맹'과 관 런된 발언들을 했지만 이는 비동맹운동에 대한 것일 뿐 동맹 불체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다. 따라서 1961년부터 1980년대까지 약 20년동 안 중국 정부가 동맹 불체결을 목표로 삼아 의도적으로 동맹 조약을 체

^{42) 1964}년 10월 24일 저우언라이와 필리핀 언론대표단의 대화는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周恩來年譜』,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p. 1061; 1975년 3월 12일 저우와 가이아나 총리의 대화는 『周恩來年譜』, p. 1448.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우언라이가 비록 형식적으로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을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은 동맹을 맺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비동맹운동으로 인해 중국이 동맹 불체결을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거는 여전히 부족하다.

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43) 그리고 1984년의 동맹불체결 시행이 1961년 이후 동맹을 결성하지 않은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거도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때,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행시킨 1980년대로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질문에 대한 인과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국가 간에 공식적인 동맹조약이 있는 사례들만을 '동맹'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연구시기는 1980년대 이후로 설정한다.

b) 가설 설정

가설 1. 국가가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클수록 동맹을 맺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주권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대외적 독립성을 강조하며 국가 통치자가 자국의 국경 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완전한권위를 갖고 있다. 이 때 주권은 배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권에서의 대외적 독립성은 내정불간섭의 원칙이 적용되며 국가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타국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간섭도 허용치 않는 것을 뜻한다.44) 하지만 동맹을 결성할 경우 동맹체결국은 동맹의 의무

⁴³⁾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제안부터 결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980년대 이후 시기선정에 재차 의문을 품을 수 있다. 하지만 1961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이와 관련하여 당대회, 전인대 문서 및 당시 중국외교정 책결정과정에서 비교적 역량을 발휘했던 중국 지도자들인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周恩來), 덩샤오핑, 류샤오치(劉少奇), 주더(朱德), 천윈(陳雲), 예젠잉(葉劍英) 및 보이보(薄一波) 등의 회고록 또는 외교문헌에서 동맹과 관련된 발언이나 정책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1979년 소련과의 동맹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제외하고 1961년부터 1980년까지 동맹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특별한 입장을 드러낸 적이 없다.

⁴⁴⁾ Stephen D. Krasner, "Rethinking the Sovereign State Mode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7, No. 5 (2001), pp. 17-42; Robert H. Jackson, "Sovereignty in World Politics: A Glance at the Conceptual and

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국가의 주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와 같은 양상은 특히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에서 주로 나타나며, 약소국은 강대국이 제공하는 안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동시에 자신의 주권 중 일부 권한을 양도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안보와 주권 간의 비대칭적 교환 (trade-off)이 이루어지면서 동맹체결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45) 사실상 국가에게 있어 주권은 국가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아닌 경우 자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주권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면서 안보를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착안하여 "국가가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클수록 동맹을 맺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첫 번째 가설이 성립된다.

가설 2. 동맹 와해의 경험이 있을 경우 재차 동맹을 맺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느 동맹 관계에서나 국가들 간의 모순은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처한 동맹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우선 동맹이 고도로 제도화 되어 있거나 동맹 국가 간에 이념적결속이 강하거나 군사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협력이 잘 되는 경우들이포함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종료되는 이유들을 보면 ①

Historical Landscape," *Political Studies*, Vol. 47, No. 3 (1999), pp. 431-456.

⁴⁵⁾ 동맹으로 인해 국가의 안보와 주권 간의 교환이 이루어지며 이 때 자국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동맹조약의 체결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약소국은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동맹의 결성과 유지에 있어 일정 부분 국가의 독립성을 양보하는 경향이 있다. James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 904-933; Michael Altfeld,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1984), pp. 523-544.

기존의 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새로운 동맹 파트너가 생겼을 경우, ② 국내에서 동맹을 극심하게 반대하는 경우, ③ 외부의 위협이 감소 또는 약화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동맹국 간에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동맹의 와해를 경험한 것은 동맹의 불필요성에 의해 동맹을 종료시킨 경험과는 분명 상이하게 작용할 것이다. 동맹의 '와해'란 동맹체결국들이 동맹조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체결국 간에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체결국들의 동맹 조약 체결 당시의 계획과 달리, 동맹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실질적 의미가 상실된 것을 말한다.

국가는 '동맹'이라는 기제를 통해 군사·정치·외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동시에 동맹으로 발생할 수 있는 딜레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동맹의 딜레마는 방기(放棄, abandonment)와 연루(連累, entrapment)로 나눌 수 있다. 방기는 동맹 파트너에 대한 배반을 뜻하며 연루는 자국의 이익과 관계없는 갈등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방기는 동맹 파트너와 적대국 간 새로운 동맹결성, 동맹상대국의 지원 요청에 대한 제한적인 지지, 동맹에 대한 책임회피 또는 동맹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동맹에서 탈퇴하는 등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난다.46) 결국 방기는 연루와 달리 동맹 체결 국가간의 신뢰가 저하되는 것은 물론 동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감소시킬수 있다.47) 따라서 동맹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방기를 경험한 국

⁴⁶⁾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1984), pp. 466-472; Glenn H. Snyder,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No. 1 (1990), pp. 103-123;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180-186.

⁴⁷⁾ 방기는 주로 약소국에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약소국은 연루 가능성을 우려하여 강대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한다. 사실 중국이 소련으로 인해 원치 않는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은 많지 않다. 비록 중국은 일정 부분소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 역시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을 결심했던 것이다. 즉,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원인이 중·소 동맹 때문만은 아니며 이와 같은 사례가 중국이 동맹파트너로 인해 연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소 동맹과 한국전쟁의 관계 및 중국이 참전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Chen Jian, "The Sino-Soviet Alliance and China's Entry

가는 동맹을 통해 얻은 이익보다 지불한 비용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착안하여 중국은 동맹을 통해 잃은 것이 많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역사적 기억은 중국으로 하여금 동맹 불체결을 결정하도록 작용했 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 동맹에서 경험했던 딜레마는 한 국가에게 동 맹이 부정적인 기제임을 인식하게 만들 개연성이 높다.48)

이 외에도 동맹의 형성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들로는 국내정치 요소, 동맹파트너 관리 수단의 확보, 국가의 군사전략, 합리주의에 기반을 둔 동맹의 비용과 그 효과에 대한 계산의 결과 및 국제체제의 변화 등수많은 독립변수들이 제기되었지만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적실성 있는 변수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49) 기존에 행해진동맹 연구들은 주로 미국 또는 유럽 국가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앞서 제시한 독립변수들 역시 이들의 동맹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히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

into the Korean War," CWIHP Working Papers, No. 1 (1992), p. 5-35.

⁴⁸⁾ 동맹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거 동맹의 경험이 현재 동맹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유럽의 사례로 분석한 연구로는 Dan Reiter, "Learning, Realism, and Alliances: The Weight of Shadow of the Past." *World Politics*, Vol. 46. No. 4 (1994), pp. 490-526.

⁴⁹⁾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동맹을 결성하였을 때 또는 결성하지 않았을 때에 따른 손익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손익을 계산해 본 후, 이익이 더 많은 쪽으로 선택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수로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을 설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없다. 이는 1984년 당시 중국의 동맹 불체결의 요인을 온전히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non-event) 것을 다루는 만큼 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특별한 논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소련 및 북한과 동맹을 결성함에 따라 두 개의 동맹 사례만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소수 사례는 일반화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동맹을 비롯한 특정 정책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손익을 설득력 있게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은 서론을 제외하고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중국의 동맹 불체결 시행 요인의 첫 번째 가설로 제시한 주권과 관련하 여 동맹 불체결의 요인을 살펴본다. 우선 동맹과 주권 간의 관계를 규명 한 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연설문, 결의 및 보고와 전국인민대 표대회의 공작보고 등을 통해 주권 수호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파악한 다. 주권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시기별로 '주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하 는 빈도와 함께 '주권'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 지를 살펴본다. 이는 중국이 항상 주권을 언급하고 있음은 물론 주권 수 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추가적으로 먼저 과거 중·소 동맹에서 발생한 중국의 주권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동맹 파트 너의 의도와 관계없이 동맹으로 인해 자국의 주권이 훼손된다고 느끼는 중국 지도자들의 주권에 대한 민감한 인식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1980 년대 이후 다른 국가들의 동맹사례에 대한 중국의 평가를 통해 중국이 동맹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들을 파악해 본다. 주권 수호의 강한 의지를 지닌 중국의 모습을 기반으로 하여 중 · 북 동맹이 유지되는 원인을 유추해볼 수 있다.

3장에서는 동맹 불체결의 시행 요인을 규명하는 또 다른 가설로 중국의 동맹 와해의 경험을 살펴본다. 동맹관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연루와 방기를 중심으로 중·소 동맹에서 중국이 경험했던 사례들을 분석해본다. 이는 동맹에 대한 의무불이행, 동맹 파트너의 지원 거부, 적과의 동맹 결성으로 나누어 중국의 방기 경험을 자세히 살펴본다. 추가적으로 소련이 중국에게 가한 군사적 위협을 파악해 보고 이것이 중국의동맹에 대한 인식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분석해본다. 이처럼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동맹의 효과 및 이익을 충분히얻지 못했으며 오히려 동맹파트너가 자국에게 위협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겪었다. 이와 같은 소련과의 동맹 와해의 경험이 오늘날 중·북 동맹과 동맹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유추해본다.

마지막 4장 결론은 본 논문의 전반적인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고 중국의 동맹 불체결 요인을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향후 중국의 전반적인 외교정책 및 동맹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부분이다. 연구 요약 부분에서는 중국의 동맹 불체결에 있어 주권과 동맹 와해의 경험, 이 두가지 가설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본다. 그리고 본 연구질문과 답이 중국의 주변국가 특히 북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연구를 맺는다.

Ⅱ. 주권에 대한 집착과 동맹 불체결

이 장은 동맹 불체결의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1980년대 이후 중국이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양상을 살펴봤으며, 이에 대한 답을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와 관련시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동맹과 주권의 관계를 살펴본 후 주권 수호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분석해본다. 그리고 중국이 동맹의 틀 안에서 주권의 침해를 받은 실례가 있는지,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중국은 이를 어떻게 인식했었으며, 이것이 1980년대 동맹 불체결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동맹과 주권의 관계

1982년 중국 정부는 '독립자주 외교정책'에 이어 1984년 '동맹 불체결'을 발표했다. 동맹 불체결은 독립자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자국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50) 동맹 불체결은 독립자주 외교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타국의 간섭이나 외부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연한 의

⁵⁰⁾ 중국이 1950-1970년대에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중국이 1950년 소련과의 동맹 조약 체결 당시 동맹으로 인해 주권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다고 여겼을 뿐이다. 마오의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는 신중국 이전에 체결했던 중국의 불평등 조약을 폐지시키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던 점을 통해 엿볼 수 있다. 葉自成, 『新中國外交思想: 從毛澤東到鄧小平--毛澤東,周恩來,鄧小平外交思想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pp. 150-158; 마오는 불평등 조약을 폐지시키는 등 주권 수호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연구로는 林祥庚, "毛澤東與我國主權的收復," 『福建省委黨校學報』, 第12期 (2003), pp. 10-14.

지를 나타낸다.51)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독립자주'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우선 '독립'은 한 국가 또는 정권이다른 국가나 정권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자주'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며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독립자주'는 국가나 정당이 주권을 보호하고,다른 사람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52) 사전적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면서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외교정책을 결정하길 원한다.

국가는 생존과 안보를 위해 자국의 군대를 강화하거나 동맹 정책을 채택한다. 동맹은 대등한 국력을 보유한 국가 간에 결성하는 '대칭적 동맹(symmetric alliance)'과 국력이 현저히 차이나는 국가 간의 '비대칭 동맹(asymmetric alliance)'으로 나눌 수 있다.53) 대칭적 동맹의 경우 동맹조약을 체결한 두 국가는 안보와 자율 어느 한쪽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동맹 체결국의 군사적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54) 반면

⁵¹⁾ 張竹雲, "試論中國對不結盟戰略的新發展," 『長春師範學院學報』, 第4期 (2001), p. 4.

⁵²⁾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辭典編輯室(編), 『現代漢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5), pp. 335, 1810; 夏征農, 陳至立, 『辭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 (http://www.k366.com/gj/cihai/) (검색일: 2013년 5월 12일).

⁵³⁾ 기존 연구에 따르면 냉전 이전 시기와 냉전기에는 대칭적 동맹보다 비대칭 동맹의 결성 비율이 더 높았다. 동맹의 유지 또는 존속과 관련해서는 비대칭 동맹이 대칭적 동맹보다 동맹 유지의 기간이 더욱 길다고 밝히고 있다. 대칭적 동맹과비대칭 동맹의 결성 비율에 대해서는 Brett Ashley Leeds and Michaela Mattes, "Alliance Politics during the Cold War: Aberration, New World Order, or Continuation of History?"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s, Vol. 24, No. 3 (2007), pp. 187-195; 대칭적 동맹과 비대칭 동맹의 존속 기간과 관련해서는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 918-926.

⁵⁴⁾ 대청적 동맹은 비대청 동맹과 달리 동맹국 모두 안보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대청적 동맹의 국가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지만 타국의 군사 규모, 군사 전략 및 군비 시설 등을 포함한 군사정보 교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David H. Bearce, Kristen M. Flanagan and Katharine M. Floros, "Alliances,

비대칭 동맹은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autonomy security trade-off)이 이루어지게 된다. 강대국은 약소국에게 안보를 제공함으로써 약소국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보한다. 하지만 약소국의 경우 '자율성'과 '안보'가 국가에게 있어 양자택일을 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율성을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55)

동맹은 다른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시에 자국의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기제이다. 일부 동맹 조약들은 '쌍방 공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중대한 모든 국제문제에 대해 협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6) 이처럼 동맹 파트너와 협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동맹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특정 이슈의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 동맹 파트너와 반드시 의견을 조율해야 함은 물론 이와 반대로동맹 조약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맹 체결국은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일정 부분 상대 동맹국의 상황이나 이익 등을 고

Internal Information, and Military Conflict Among Member-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0, No. 3 (2006), pp. 595-625.

⁵⁵⁾ James D.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1991), pp. 904-933.

⁵⁶⁾ 중국과 소련의 동맹 조약의 경우 제4조에 '양국의 공통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국제문제를 서로 협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소 동맹조약 원문은 迪 特·海茵茨希 著, 張文武, 李丹琳 等譯, 『中蘇走向聯盟的艱難歷程』, (北京: 新華 出版社, 2001), pp. 696-698을 참고. 바르샤바(WARSAW) 조약인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에서는 제3조에서 '조약 체결국은 공통이해에 관련된 모든 중요 한 국제문제를 상호 협의한다'고 적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북한과 소련이 '북한·소련간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의 제3조, 북한과 중국의 '중조우호협력호조조약'의 제4조, 미국과 대만 간 '미합중국과 중화민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의 제3조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SEATO),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Australia, New Zealand, United States Security Treaty: ANZUS) 의 조약, 독일연방공화국 (동독)과 소련 간 체결한 조약과 한국과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상호 협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국방조약집(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pp. 154-157, 873-874, 880-881, 886-888, 890-891, 901-902, 940-946.

려해야 할 것이다.57) 즉, 동맹의 결성은 체결국 간에 의도치 않게 상대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58)

설령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동맹의 틀 안에서 약소국과 협력을 도 모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일방적으로 강대국의 의도와 선호대 로만 정책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59) 즉, 동맹 체결국들 은 국가의 국력과 크게 상관없이 정책시행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며, 동맹이 오히려 주권을 훼손시키는 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으므로 정책 결정의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60)

동맹이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권'수호에 대한 집착이 강한 국가일수록 동맹의 비대칭적인 구조 속에서 주권이훼손당하는 것에 더욱 격렬히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자신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한 것

⁵⁷⁾ 예쯔청(葉自成)은 동맹조약을 체결하면 타국의 의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맹 결성과 독립자주의 외교정책은 상호 모순적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독립자주의 외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葉自成, 『新中國外交思想:從毛澤東到鄧小平--毛澤東,周恩來,鄧小平外交思想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p. 155.

⁵⁸⁾ 티토(Josip Broz Tito)는 소련과 동맹 조약을 체결할 경우 중요한 외교정책이나 국제적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소련과 논의해야 하는 것에 반감을 느꼈다. 예를 들면 티토는 알바니아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소련에 통보하지 않으려고 했다. 티토의 이러한 생각이 결국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진영에서 이탈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222-223.

⁵⁹⁾ 특정 이슈에 대해서 동맹국 간의 입장이 상이할 경우, 두 국가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및 협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밝힌 연구로는 Jeremy Pressman,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⁶⁰⁾ 동맹을 결성한 국가들은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비록 처음에는 다른 의 견을 표출했을지라도 결국은 유사한 정책들을 수렴하게 된다. Michael F. Altfeld,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1984), pp. 523-544.

은 물론 이들이 가진 비대칭 동맹의 본연적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졌다.61) 즉 주권에 유난히 민감한 중국은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집중했다.62) 뿐만 아니라 동맹 파트너를 보호한다는 주장 하에 취한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63)

중·소 동맹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불만을 느끼기 시작한 중국은 미국이 동맹 파트너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1957년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저우언라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이 그들에게 가하는 경제·정치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회주의국가들과 화해는 물론 호혜의 관계로 발전하길 원한다"고 발표했다.64) 다음 해 저우언라이는 미국이 동맹국들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행동들을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미국은 제국주의진영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동맹국들을 간섭과 통제 및 약탈 등의 행위를 일삼는다. … 미국은 동맹국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국가와 대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미국은 일관되게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자국은 침략을 받지 않는 우월한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보호'를 필요

⁶¹⁾ 동맹이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일본의 사례로 살펴본 연구로는 馮昭奎, "日本: 戰略的貧困," 『世界知識』,第7期(2001),pp.8-11;張景全, "結盟對國家崛起,發展的影響: 以日本爲例的歷史分析," 『日本學刊』,第3期(2006),pp.52-64.

⁶²⁾ 정재호, "한·미 동맹을 둘러싼 갈등," 정재호(편),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 265.

^{63) 『}中蘇外交檔案解密』, CCTV (http://tv.cntv.cn/videoset/C40164) (검색일: 2013년 4월 1일); 劉德喜, 『從同盟到夥伴: 中俄(蘇)關係50年』, (北京: 中共黨 史出版社, 2005), pp. 167-168; 吳冷西, 『十年論戰: 1956-1966 中蘇關係回 憶錄』,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9), pp. 35-36.

^{64) 1957}년 6월 26일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 정부공작보고는 http://www.gov.cn/test/2006-02/23/content_208756.ht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일: 2013년 5월 13일).

로 할 때 미국만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미국동맹국들의 실질적인 위협은 미국이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주권과 이익의 훼손이다. … 미국은 이른바 '상호 의존'이라는 구호를 주창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이 동맹국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65)

1964년 제3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저우언라이는 "미국이 정치·경제·군사 등 각 방면에서 그들의 모든 동맹국들을 억압하며 능욕한다"고 발언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이 동맹국들을 억압하고 제어하는 행동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66) 중국은 중·소 동맹의 불평등 구조와 소련이 중국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행위에 불만을 가졌다. 특히 1958년 이후 중국은 소련에게 불평등과 관련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동맹의 틀 안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이 동맹 파트너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은 동맹국이 자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시도들을 철저히 경계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타국의 동맹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를 피하며 동맹국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북한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 이처럼 중국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으며 타국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을 일체 용납하지 않았다.67) 특히 양안(兩岸)관계 및 티베트 독

^{65) 1958}년 2월 10일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저우언라이는 "오늘날의 국제형세와 우리나라의 외교정책(目前國際形勢和我國外交政策)"를 발표했다.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23/content_5328377.htm (검색일: 2013년 5월 13일).

^{66) 1964}년 12월 31일 저우언라이가 제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pc.gov.cn/wxzl/gongbao/2000-12/24/content_5328407.htm (검색일: 2013년 5월 13일).

⁶⁷⁾ 중국의 북한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 적용은 중국이 북한의 내정을 간섭할 의도 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명성이 훼손되는

립 등의 이슈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경우 중국은 이들 모두 중국의 내정문제이며 타국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 한다는 등 여전히 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68) 중국 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동맹을 결성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된다.

2. 중국의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

중국은 건국 초기부터 주권과 평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1949년 9월 제1차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통과된 『공동강령』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정책의 원칙은 본 국가의 독립과 자유 및 영토주권의 온전함을 보장하는 것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평등, 호혜, 영토 및 주권의 상호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으며, 국가 간 협상을 통해 외교관계를 맺는다." 69)

http://www.china.com.cn/aboutchina/txt/2009-08/16/content_18343352.htm (검색일: 2013년 6월 12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대국이 된 지금도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이는 2012년 발표한 '신형 대국관계'에서 중국의 입장을 알 수 있다.

것을 원치 않는다. 1990년대부터 2009년까지 일어난 중·북 관계의 변화 추이는 다음의 연구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정재호, "북-중 관계의 변환과 한반도의 국제정치",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pp. 323-347.

^{68) 1982}년 817 상하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미국의 대 대만 무기판매로 인해 긴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을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대 대만 무기 판매로 인해 중국과 미국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의일환으로 『미・중 "8・17" 연합공보』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중・미관계에서도 중국은 자국의 주권을 존중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중국정부가 미국의 대 대만 무기 판매와 관련하여 이는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정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내용은

http://politics.people.com.cn/GB/1024/17804148.html (검색일: 2013년 6월 12일).

^{69) &}quot;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共同綱領 (1949年)" http://news.163.com/09/0805/13/5FV6C2LT00013HTJ.html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고』에서도 중국이 외교관계에서 주권의 영역을 강조하는 모습을 재차확인할 수 있다.70) 건국 초기 발표한 문건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주권'수호를 주장해왔다. 1952년 4월 총리저우언라이(周恩來)가 과거 국민당 정부가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모두폐지하고 '새롭게 시작한다(另起爐灶)'는 것을 외교원칙으로 삼아 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했던 것을 주된 예로 들 수 있다.71)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20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들의 임무는 인민의 혁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온전성을 지켜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72) 이와 같이 중국은 주권 수호를 국가 헌

http://www.china.com.cn/ch-meet/ziliao/renda-onejie/renda-12-15.ht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일: 2013년 3월 28일)

⁽검색일: 2013년 3월 29일)

^{70) &}quot;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고", http://old.chinacourt.org/public/detail.php?id=79329 (검색일: 2013년 3월 28일).

^{71) 1952}년 4월 30일 저우언라이 "我們的外交方針和任務" http://cpc.people.com.cn/GB/69112/75843/75874/75994/5183847.html (검색일: 2013년 3월 24일); 건국 초기 중국의 외교원칙 중 하나인 '새롭게 시작한다'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 연구는 李久林, "毛澤東與 "另起爐灶"的外交戰略理論和實踐," 『北京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1期(2004), pp. 52-53.

⁷²⁾ 오늘날 중국 헌법에서 '주권 수호'의 내용은 서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2004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헌 법의 내용은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4/content_62714.ht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82년 12월 4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 서 통과된 헌법부터 '주권 수호'의 내용은 서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82년 의 헌법은 http://www.npc.gov.cn/wxzl/wxzl/2000-12/06/content_4421.htm 에서 볼 수 있다. 1978년과 1975년의 헌법은 동일하며 헌법 서문을 보면 "우 리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영토를 보전한다"고 나와있다. 1978년의 헌법은 http://www.npc.gov.cn/wxzl/wxzl/2000-12/06/content_4365.htm , 1975년 헌법은 http://www.npc.gov.cn/wxzl/wxzl/2000-12/06/content_4362.htm 에 서 확인할 수 있다. 1955년 당시 중국의 헌법은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초안에 대한 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초안은

법에 포함시킬 만큼 '주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73) 비록 1954년의 헌법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됐지만 현재의 헌법 역시 독립자주의 외교정책과 함께 상호 주권 존중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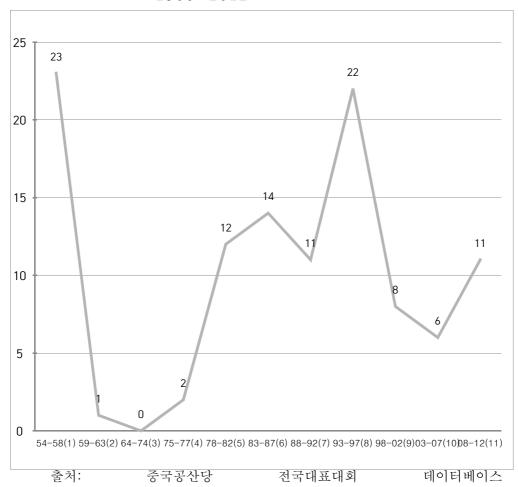
중국이 건국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권'을 강조해온 모습을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발언들을 통해서도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은 1956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공산당전국대표대회에서 '주권'을 언급한 빈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도 알수 있듯이, 1987년 제13차 전국대표대회를 제외하고선 '주권'을 언급했으며 그 빈도가 199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전국대표대회를 기준으로 '주권'발언의 빈도를 살펴보면 1992년(제14차)이 9번으로 가장 많고 1997년 이후 3번으로 감소한 후 2002년과 2007년에 점차 늘어났다가 2012년 2번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2-2〉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공작보고(工作報告)에서 '주권'이 언급된 빈도를 보여준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1965년부터 1974년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열지 못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주권'은 지속적으로 언급됐다.74) 전인대에서의

⁷³⁾ 중국 헌법과의 비교를 위해 임의적으로 몇몇 국가의 헌법을 함께 살펴보았다. 미국, 한국, 프랑스와 독일의 헌법을 살펴보았을 때 미국, 프랑스와 독일은 주권 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은 '주권'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 지만 주권을 수호하자는 내용은 아닌 제1장 제1조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에게 있고"와 "국회는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에 관한 조약의 체결 · 비 준에 대하 동의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한국 헌법은 http://www.usconstitution.net/const.htm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랑스의 헌법은 http://www.assemblee-nationale.fr/english/8ab.asp, 독일 헌법 은 http://www.assemblee-nationale.fr/english/8ab.asp 에서 볼 수 있다. (검 색일: 2013년 3월 28일). 영국의 경우 명시적인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⁷⁴⁾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주권'을 언급한 횟수가 증가했으며, 이처럼 급증한 원인은 1997년 홍콩과 1999년 마카오 반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권'발언의 빈도는 197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연관되어 있

그림 2-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주권'발언 빈도, 1956-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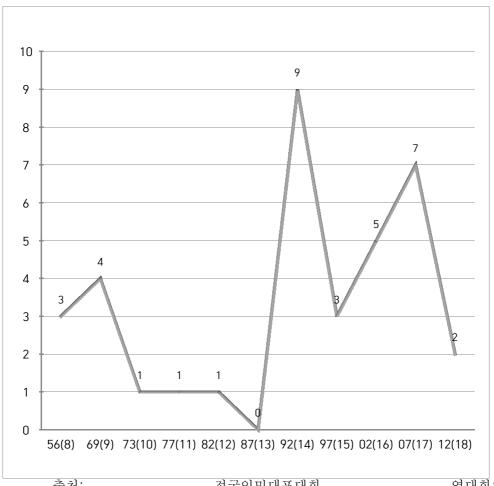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l)의 각종 문건에서 '주권'단어의 등장을 센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

- a. () 안의 숫자는 전국대표대회의 회차를 뜻한다.
- b. 주권 발언 횟수는 해당 연도 전국대표대회에서 언급한 것만을 포함하 였으며, "~중전회(中全會)"의 것은 제외시켰다.75)

다. 중국은 대외개방을 하더라도 여전히 '주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수호할 것을 강조한다.

^{75) &}quot;~중전회"에서는 주로 공보(公報), 결정(決定) 또는 결의(決議) 등 간단한 내용만을 발표한다. 따라서 여기서 포함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전국인민대표대회 '주권' 발언 빈도, 1954-2012



전국인민대표대회 출처: 역대회의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18/content_695280.htm) 홈페 이지의 모든 문건에서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빈도를 기반으로 필자가 작성.

- a. () 안의 숫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의 회차를 뜻한다.
- b. 전인대의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를 비롯한 중요발언(重要發言) 은 매년 발표되지만, 국내 정치 혼란기에 발표되지 않은 보고가 있다. 따라서 회차를 중심으로 '주권'의 빈도를 측정했다.

표 2-1.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주권'관련 발언 내용 및 빈도, 1954-2012

'주권'	발언	횟수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	保衛主權	13	153	
	捍衛主權	26		
	維護主權	114		
상호간 주권을 존중해 여	7	1		
주권을 행사한다 (行使主權)			54	
주권을 침범했다/하는 것이다	侵犯/侵害主權	24	0.0	
	損害主權	9	33	
주권은 분할할 수 없다 (主權不容/不能分割)				
주권은 항상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 (主權始終放在第一位)			7	
자국의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保障本國的主權)				
국가주권 범위 내의 일(문제)이다 (國家主權範圍(以)內的事/問題)			5	
주권 평등의 원칙(主權平等的原則/準則)			:	
기타			3	
합계			8	

출처: 1956년~2012년(제8차~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중앙문헌문건, 1954년~2013년(제1기~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중앙문헌문건 및 각 지도자 선집과 문헌 등을 기반으로 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76) '주권' 발언은 1978년부터 1997년까지 증가했으며 그 이후 2007년까지 그 수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주권' 단어의 사용 빈도가 증가한 전국대표대회와 달리 전인대의 경우 1982년 '동맹 불체결' 시행 이후 '주권' 발언의 평균 빈도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빈도만으로는 중국정부의 주권수호에 대한 의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77)

〈표 2-1〉은 중국이 '주권'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어떤 단어를

월 27일).

⁷⁶⁾ 중국정부나 지도자들의 주권 발언은 다음의 문헌 및 문서들에서 찾아 정리한 것 이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毛澤東文集(第六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毛澤東文集(第七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9);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毛澤東文集(第八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9); 周恩來 著, 『周恩來選集(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1984); 中共中央 統一戰線工作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 著,『周恩來統一戰線文選』,(北京:人民出 版社, 1984);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 編, 『周恩來軍事 文選(第四卷)』,(北京:人民出版社,1997);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央檔案館 編, 『建國以來劉少奇文稿(第一冊)(1949.7~1950.3)』,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5);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央檔案館 編. 『建國以來劉少奇文稿(第五 冊)(1953.1~1953.12)』,(北京:中央文獻出版社,2008);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央檔案館 編、『建國以來劉少奇文稿(第七冊)(1955.1~1955.12)』、(北京: 中 央文獻出版社, 2008);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朱德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1983); 鄧小平 著.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陳雲 著, 『陳雲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5); 江澤民 著, 『江澤民文選 (第一卷)』,(北京:人民出版社,2006);江澤民 著,『江澤民文選(第二卷)』,(北 京:人民出版社,2006);江澤民 著,『江澤民文選(第三卷)』,(北京:人民出版社, "中國共產黨歷次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l (검색일: 2013년 3월 27일); "歷屆全國人大歷次會議".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18/content_695280.htm (검색일: 27일); 歷年國務院政府工作報告(1954年至2013年) 3월 http://www.gov.cn/test/2006-02/16/content_200719.htm (검색일: 2013년 3

⁷⁷⁾ 앨런 칼슨(Allen Carlson)이 『Beijing Review』와 『中國外交概覽』에서 '주권' 등장의 횟수를 세어 1980년대보다 1990년대 그 사용의 빈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가설1의 독립변수인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를 주권 언급의 빈도만으로는 증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한다. Allen Carlson, *Unifying China, Integrating with the World: Securing Chinese Sovereignty in the Reform Era*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5), p. 47.

함께 사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주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해 보았다. 이는 '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빈도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제시한 것이며 중국이 주권과 관련하여 '주권 수호'를 가장 강조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주권'이라는 단어의 빈도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듯이, 중국은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국가 간 상호 주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의 발언은 두 번째로 빈도가 높다. 이는 중국 외교원칙의 핵심인 '평화공존 5원칙(和平共處五項原則)'중 첫 번째 조항인 국가 간에 주권을 상호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역설한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주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 미국의 연두교서에 드러난 '주권'관련 발언의 빈도를 측정한 결과, 대통령에 따라 '주권' 언급의 빈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78) 그리고 미국은 건국 이후부터 미국이 처음 맺은 일본과의 동맹체결 이전까지 (1790-1907년) 총 118차례의 연두교서를 발표했으며 그 중 65차례 (약 55%)에 걸쳐 '주권'이 언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것은 1907년 이후 미국이 주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1908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은 '주권'이란 단어를 사용할 경우 자국의 주권이 아닌 라틴 아메리카, 멕시코 및 한국 등 타국의 주권을 논하고 있다는 점이다. 79) 이처럼 미국의 연두교서를 통해 주권의 언급과 동맹 결성이 전

⁷⁸⁾ 이례적으로 1933년에만 연두교서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1981년에는 카터 (Jimmy Carter)와 레이건(Ronald Reagan)이 각각 발표함으로써 2개의 연두교서가 있다. 미국의 연두교서는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홈페이지 (http://www.presidency.ucsb.edu/sou.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연두교서에서 'sovereignty'로 검색했다.

^{79) 1907}년 이후 연두교서를 통해 미국이 자국의 주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조약 체결과 주권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바이다. 루즈벨트(T. Roosevelt)미국 대통령은 1904년 12월 "미국은 먼로주의에 입각해 국제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발표하면서 제국주의적인 팽창을 선언했다. 미국은 이전의 고립주의 정책을 시행하던 때와 달리제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1905년 미국은 일본과 비밀리에 가쓰라-태프트조약(The Katsura-Taft Agreement)을 체결했다. 밀약의 내용은 ①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할 의도를 갖지 않으며 ② 극동지역의 평

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국가일수록 공식적으로 주권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논리에 착안하여 중국의 '주권' 단어의 언급 빈도와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중국이 '주권'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1980년대에 동맹 불체결 노선 발표 이후 덩샤오핑은 동맹불체결이 과거와 달리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최우선순위에 둔다'고명시했다. 즉 과거 중국외교관계의 핵심요소가 이데올로기였던 것과 달리 1980년대 이후에는 주권과 안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동맹 결성이 국가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을 가장중요시하면서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한 중국은 동맹 조약의 체결이쉽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80) 또한 중국은 아직 미국과같이 초강대국의 국력을 갖추지 못한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이며 이로 인해 주권 수호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81)

화유지를 위해 일본, 영국과 미국은 동맹을 맺는다는 등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연두교서를 통해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시점과 미국이 동맹을 결성하는 시기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필리핀을 통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국의 주권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가쓰라 태프트 조약에 대해서는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pp. 82-83, 226; 강성현, 『21세기한반도와 주변 4강대국』, (서울: 가람기획, 2005), pp. 205-206, 221.

⁽http://www.dangjian.tsinghua.edu.cn/publish/dangjian/142/2012/201203231 05817540178498/20120323105817540178498_.html); 2006년 3월 12일 후진타오의 발표, "把維護國家主權和安全放在第一位" (http://www.people.com.cn/GB/paper39/17077/1498248.html); 2012년 3월 6일 양제츠(楊潔箎)의 발표, "要把國家安全主權放在首

[&]quot; (http://www.cnr.cn/2012zt/qglh2012/zb/wjbzdw/wzsl/201203/t20120306_ 509248171.shtml) (검색일: 2013년 4월 8일).

⁸¹⁾ 陳樂民, "國際合作與主權," 『世界知識』, 第5期 (1992), pp. 14-15.

3. 중·소 동맹과 주권 침해

전국 직후 중국은 외부 세력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과의 동맹 결성은 필요 불가결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비록 소련과 국력의 차이는 있지만 상호 평등한 위치에서 동맹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조약 체결이 자국의 정당한 국제 지위를 되찾기 위한 첫 단계일 뿐이며 결코 소련의 위성국으로 전략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82) 이러한 중국의 인식과 노력은 1950년 2월 14일 동맹을 결성하기까지 수개월에 결친 협상에서도 알 수 있다. 소련은 중·소간 동맹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1945년 국민당과 맺었던 "중소우호동맹조약(中蘇友好同盟條約)"과 동일한 내용을 제안했다. 그러나 저우언라이는 소련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상호호혜(互助)'라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는 중·소 관계가 단순히 일방적인 지원과 보호를 위한 비대칭 관계가 아닌 상호 동등한 관계임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자 포함시킨 것이었다.83)

마오쩌둥은 과거의 '중소우호조약(中蘇友好條約)'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했으며 기존의 조약과 다른 중국의 주권과 경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약을 체결하길 원했다. 또한 중국은 1945년 2월 미국, 영국 및 소련의 수뇌들이 만들어낸 얄타체제

⁸²⁾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386.

⁸³⁾ 田居儉, "維護主權和領土完整的嚴正鬪爭 - 從《雅爾塔協定》到《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 『當代中國史研究』,第1期(1997), pp. 1-13; 欒景河,李福生, "《中蘇友好同盟條約》與《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之比較," 『當代中國史研究』,第2期(2004), pp. 94-128; Sergei N. Goncharov, John W. Lewis, and Xue Litai,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76-129; 劉德喜, 『從同盟到夥伴:中俄(蘇)關係50年』, (北京:中共黨史出版社, 2005), pp. 73-88.

의 불평등적인 구조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했다.84) 중국은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하되 지속적으로 소련과 동등한 관계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건국 이전부터 이미 소련에 의존하는 일변도(一邊倒)정책을 시행했지만 이를 두고 마오쩌둥은 "일변도 정책은 소련과 협력하는 것이며 평등한 정책"임을 역설했다.85)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등 당시 중국의 핵심 지도자들은 신중국 건립 이전부터 이미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주권의 완정성과 내정 불간섭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마오는 "중국은 반드시 독립해야 하고 해방 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국내 문제는 필히 중국인이 자주적으로 처리 해야하며 어떠한 제국주의 국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우언라이도 "중국 외교의 기본적인 입장은 중화민족의 독립과 독립자 주 그리고 자력갱생"이라고 했다. 대 소련 '일변도 정책'의 시행과 동맹 조약의 체결을 전후로 이러한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 점을 고 려할 때 중국은 비록 소련과 동맹을 결성하더라도 자국의 입장을 명확하 게 표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마오쩌둥은 건국 이전부터 모든 일을 독립적으로 결정했으며 외부세력이 중국의 정책 결정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했다. 예를 들면 마오쩌둥이 먼저 중국의 정책을 모두 결정한 다음 스탈린과 소련공산당에게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스탈린 과 소련공산당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를 철저히 차단했다.86)

⁸⁴⁾ 沈志華, "同盟條約的簽訂及中蘇利益衝突," 沈志華 主編,『中蘇關係史綱: 199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pp. 111-112. 알타협정에 따르면 소련은 뤼순항구와 블라디보스토크 및 빈하이 (濱海)지역의 중요한 통로에 소련군을 주둔시키고 장춘(長春)철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외에 중국과 소련이 '알타협정'을 두고 벌인 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郝遙, "毛澤東決策中蘇同盟," 『湘潮』,第9期(2011), p. 56;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이 알타체제의 불평등함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평가하는 연구로는 田居儉, "維護主權和領土完整的嚴正鬪爭 - 從《雅爾塔協定》到《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 『當代中國史研究』,第1期(1997), pp. 1-13.

⁸⁵⁾ 毛澤東, 『毛澤東文集(第七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6), p. 176.

⁸⁶⁾ 毛澤東, 『毛澤東選集(第四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1), p. 1465; 周恩來, 『周恩來選集(上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7), p. 32; 周承超,陳琲,朱超男, "獨立自主是鄧小平對外戰略的脊梁." 『理論建設』, 第5期 (1997), pp.

1953년 2월 13일 중국은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체결 3주년 기념행사에서 "중·소우호동맹호조조약의 또 다른 목표는 우호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상호 존중하고 상대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87)중국은 무엇보다 동맹관계에서 자국의 독립성이 상실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동맹 파트너가 자신의 주권과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88)

중국이 소련과의 동맹관계에 불만을 갖게 된 계기는 1958년 7월 소련이 중국에게 연합함대 편성과 장파무선(長波無線, long wave) 기지 국 건설을 제의한 것 때문이었다.89) 마오쩌둥은 장파무선 기지국과 연 합함대가 주권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연합함대의 건설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중국 해안으로 확장시키 려는 시도의 일환이며 이러한 건의는 중국인들의 자존심과 주권에 굴욕 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 였다. 마오쩌둥은 이와 같은 소련의 두 가지 제안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

^{49-53;} 葉自成, 『新中國外交思想: 從毛澤東到鄧小平--毛澤東,周恩來,鄧小平外交思想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1), p. 13.

^{87) &}quot;在北京各界慶祝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建國以來劉少奇文稿(第五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8) pp. 40-50. 이와 같은 원칙은 경제 원조를 받거나 경제협력 및 경제와 문화 교류의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말한다.

⁸⁸⁾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新中國外交的光輝 歷程" http://www.fmprc.gov.cn/mfa_chn/ziliao_611306/wjs_611318/2159_611322/t8737.shtml (검색일: 2013년 3월 26일); 毛澤東, 『毛澤東選集(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1), p. 236, 330; 마오쩌둥이 소련의 장과무선 기지국과 연합하대 건설 제의로 인해 소련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은 1966년 3월 28일 마오쩌둥과 일본공산당대표단과의 담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章百家, "從"一邊倒"到"全方位"——對五十年來中國外交格局演進的思考," 『中共黨史研究』,第1期(2000), p. 24.

⁸⁹⁾ 劉曉, 『出使蘇聯八年』,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8), pp. 87; 장파란 주파수가 300KHz 이하인 전자파를 말한다. 장파를 사용하는 기지국을 장파무선기지국 이라 하며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민간 장파무선기지국을 자주 사용했다. 장파무선기지국은 주로 무선 네비게이션, 장거리 통신뿐만 아니라 긴급사태시통신, 지진 감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http://baike.baidu.com/view/2910471.htm (검색일: 2013년 5월 18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결국 중·소 관계 악화의 도화선이 되었다.

장파무선 기지국의 건설이 주권과 연관돼 있다는 중국의 생각은 평더화이(彭德懷)와 말리노프스키(R. Y. Malinovskii)가 양국 대표로 1958년 베이징에서 체결한 '8·3협정'의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90)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파무선 기지국은 중국이 독자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며 이 때 소유권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다. ② 기지국 건설과정에서 소련은 설계와 건설 등 기술 영역에 한해서 도움 및조언을 제공하며 만약 중국이 갖추지 못한 장비나 기자재가 있을 경우소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국 측의 비용 지불은 모두 무역계정을 이용한다.91) 협상과정에서도 장파무선 기지국의 건설비용과 소유권의 문제가 논란이 됐었던 만큼 협정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만을 받길 원했다. 왜냐하면 소련이 중국을 돕는다는 핑계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에서 동맹으로 인해주권이 훼손되거나 통제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희망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마오는 자국 영토 내에 외국군이 주둔하는 것 역시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92) 따라서 중국 내 소련의 군사기지 건설은 물론, 주둔 외국군에 대해서도 완강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93) 1958년 8

^{90) &#}x27;8・3 협정' (八三協定)의 다른 이름은 '關於建設,維護和共同使用大功率長波無線電發信臺和專用遠距離無線電收信中心的協定' 이다.

⁹¹⁾ 협정의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mil.chinaiiss.com/html/20107/1/a2789b_7.html (검색일: 2013년 4월 9일)

⁹²⁾ 평더화이는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장파무선 기지국 건설과 관련하여 중국군사기 지에 외국인이 주둔하지 못하게 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는 중국과 상대 국가에게 서로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沈志華, "長波電臺和 "共同艦隊" 風波再解讀," 『中國新聞週刊』, 第2期 (2013), p. 82.

⁹³⁾ 중·소 동맹 조약 체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주중 소련 주둔군을 빠른 시일 내에 철수할 것을 주장했다. 소련은 뤼순 주둔군 문제와 관련하여 "임기응변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했으며, 실질적으로 현행의 조항을 수정하는 즉, 소련주둔군이 뤼순에 계속 주둔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의 완강한 건의로 인해

월 대만해협에 위기가 고조되자 소련은 뤼순(旅順)과 다롄(大連)을 소련 기지로 이용하겠다고 통고했다. 같은 해 9월 흐루시초프는 당시 류샤오(劉曉) 주소련 중국대사에게 대만해협의 방어를 위해 공군지원을 제안했지만 마오는 이 역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94) 이후에 흐루시초프가 이를 두고 "소련의 이러한 제의가 오랜 기간 외국의 지배를 받은 국가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린 것이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마오의 민족주의 감정에 상처를 주었다"고 회고했다.95)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변도'정책을 시행한 이후 중국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소련과의 평등한 관계"는 실질적으로 불평등했다. 소련은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이는 중국과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유고슬라비아는 1949년 10월 신중국을 국가로 승인한데 반해 중국은 유고슬라비아에게 어떠한 반응도 보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소련이 중국과 유고슬라비아 간의 수교를 반대했기 때문이다.96) 그리고 한국전쟁과 관련하여중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지만 사실 이러한 결정은 모두 중국의자의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당시 소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중국은 스탈린으로부터 신뢰를 얻고자 한국전쟁에 참전을 결정했으며 이런 사례들을통해 소련이 중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중국은 소련과의 동맹조약 체결로 인해 자국의 정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으며 소련의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다.97) 스

소련은 뤼순의 소련 주둔군을 철수할 것을 약속했다. 郝遙, "毛澤東決策中蘇同盟," 『湘潮』, 第9期 (2011), p. 54.

⁹⁴⁾ 모리 카즈꼬 지음, 김하림 옮김, 『중국과 소련: 그 300년의 역사 그리고 사회 주의는 재생할 것인가』 (서울: 사민서각, 1990), pp. 70-71.

⁹⁵⁾ 沈志華, "長波電臺和 "共同艦隊" 風波再解讀," 『中國新聞週刊』, 第2期 (2013), p. 82.

^{96) 1956}년 9월 마오쩌둥은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연맹 대표단과의 담화에서 이 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毛澤東外交文選』, (北京: 中共文獻出版社, 1994), p. 252.

⁹⁷⁾ 중·소 동맹은 특정 정책과 관련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소련과 의견이 일치하도록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활동은 소련이 주축인 사회주의진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면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된 다수의 원인

탈린 시기 소련의 영향력 행사로 인해 자주적인 정책 결정권을 침해받았던 중국은 195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소련과의 일정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건국 초기 소련을 대상으로 펼쳤던 '일변도' 동맹 전략을 수정해 나갔다.98)

중국과 소련의 국력 차이로 인해 형성된 불평등 구조 이외에도 사회주의진영 내의 국제 질서는 중국의 소련에 대한 불만을 점차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99) 사회주의진영 내 공산당 간의 질서는 그 상하관계가 뚜렷하며 그것은 소련 중심의 질서를 의미했다. 국가의 크기나 국력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며 국가 간의 평등한 질서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사회주의사상을 중심으로 단결했으나 이는 곧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사회주의지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왔다.100)이러한 양상에서 중국과 소련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련 지도부는 "사회주의국가들은 동일한 정치사상을 공유해야 하며 사회주의국가 간의 이익 역시 항상 일치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국가들이 항상 가장 먼

중 하나는 소련 때문이었으며 이와 같은 환경에서 중국이 진정한 의미의 독립자주를 실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劉德喜, 『從同盟到夥伴: 中俄(蘇)關係50年』,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5) p. 153. 중국이 중·소 동맹으로 인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은 Chen Jian, "The Sino-Soviet Alliance and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CWIHP Working Papers*, No. 1 (1992), p. 5-35.

⁹⁸⁾ 葉自成, 『新中國外交思想: 從毛澤東到鄧小平--毛澤東,周恩來,鄧小平外交思想研究』,(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1), p. 26.

⁹⁹⁾ 사회주의진영의 국가들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면서 국가 관계보다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질서를 구축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와 당을 철저히 분리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불평등한 관계와 공산당의 위계적 질서를 살펴본연구로는 沈志華, 李丹慧, "結構失衡: 中蘇同盟破裂的深層原因," 『探索與爭鳴』,第10期(2012), pp. 3-11; 사회주의진영 국가들 간 동맹에서 공통적으로나타나는 특징인 불안정과 다변성의 구조적 문제가 중・북 동맹에서도 나타났다는

http://military.china.com/history4/news2/11078475/20110503/16517367.ht ml (검색일: 2013년 5월 18일).

¹⁰⁰⁾ 공산당 지도자들이 정권을 잡기 전에는 국가주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각 국가에 있는 공산당들은 오로지 동일한 목표와 이론만을 추구하면서 무산계급의 국제주의만을 제창했다. 하지만 공산당 지도자들이 집권한 이후에는 국가의 상황 과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국가이익을 추구하면서 국가 간의 이익이 상충했다.

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소련 측의 주장은 사회주의국가들의 국가이익이 소련의 국가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101)

1950년대 후반 중국은 이미 소련과의 불평등한 관계에 염증을 느 였으며 소련의 쇼비니즘을 비판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중국 지도자들의 담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56년 9월 마오쩌둥은 유고슬라비아 대표단에게 "스탈린 이후 소련과 사회주의국가들은 '형제 관계'에 가까워졌지만 '부자(父子) 관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102) 그리고 1957년 1월 마오의 연설이 있기 며칠 전 저우언라이는 흐루시초프와의 만남에서 "소련은 중종 사회주의 형제당의 이익보다 소련공산당의 이익을 더욱 중요시한다"고 비판했다.103) 이처럼 중국은 소련에게 국가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권 침해뿐만 아니라 공산당 간의위계질서 속에서 드러나는 불평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느꼈다.104) 이는 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관계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주권 존중, 상호 내정불간섭과 평등호혜의 원칙에 기초해야 하며 사회주의국가들은 평등의 정신 아래 협상을 통해 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중·소 동맹에서 지속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강조했다는 것을

¹⁰¹⁾ 劉愛華, "關於中蘇關係的歷史思考," 『內蒙古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 6期 (2002), p. 68.

¹⁰²⁾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형용한 것뿐만 아니라 고양이와 쥐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했다. Minute, Conversation between Mao Zedong and Ambassador Yudin, 22 July 1958, *CWIHP Bulletin*, No. 6/7, (Winter 1995) pp. 155.

¹⁰³⁾ Report, "My Observation on the Soviet Union," Zhou Enlai to Mao Ze 'dong and the Central Leadership, 24 January 1957(Excerpt), The Emerging Disputes between Beijing and Moscow: Ten Newly Available Chinese Documents, 1956–1958, Translated and Annotated by Zhang Shu Guang and Chen Jian, *CWIHP Bulletin*, No. 6/7, (Winter 1995), pp. 153–154.

^{104) 1950}년대 후반 중국이 소련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토로하기 전부터 소련 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평화 공존 5원칙을 발표했다. 章百家, "從"一邊倒"到"全方位"——對五十年來中國 外交格局演進的思考,"『中共黨史研究』,第1期(2000), p. 23.

알 수 있다.105)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 관계와 사회주의진영으로부터 파생된 상하관계로 인해 불평등을 겪었다. 소련의 의도와 관계없이 동맹의 틀 안에서 소련의 제안과 요구들은 중국에게 지속적으로 자국의 주권을 침해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평등 구조의동맹 파트너보다 약한 중국에게 중·소 동맹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기제로만 여겨졌다. 1982년 동맹 불체결 노선을 발표하면서 '어떤 강대국과도 동맹을 결성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자국의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중국이 중·소 동맹으로부터 주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권 수호에 의지가 강한 중국으로서는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제인 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려고 하며 이러한 의식 속에 동맹 불체결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소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맹 체결국 중 일방은 동맹의 기제로 인해 주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비대칭적인 동맹에서 약 소국의 경우 그 주권 훼손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동맹의 특징 으로 인해 주권에 민감한 국가일 경우 동맹을 결성하지 않으려고 할 것 이다. 중국정부의 '주권'언급 빈도 및 주권과 함께 사용된 단어의 패 턴을 분석함에 따라 주권 수호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건국 이전부터 중국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국가 간 평등한 관계와 독립 적인 정책 결정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중·소간 모순이 발생한 원인은 불평등 때문이며 이는 중·소 관계가 완화되는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106) 이를 통해 과거 중국이

¹⁰⁵⁾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周恩來年譜(中)』,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p. 8, 10.

소련으로부터 주권을 침해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동맹을 결성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덩샤오핑은 "국가 간 관계는 모두 평화공존 5원칙을 기반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대가족'방식, '집단정치'방식 또는 '세력균형'의 방식과 같은 여타의 것들은 모두 모순을 가져오며, 국제정세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과거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패권주의, 집단정치 또는 집단안보체제와 같은 것은 현재 국제정세에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집단정치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을 뜻한다"라고 말했다.107)

중·소 동맹은 실질적으로 불평등했으며 조약 체결 당시 중국과소련 간의 뚜렷한 국력 차이는 소련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큰 형"과같은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었다.108) '독립자주'구호와 함께 자국의주권 수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중국은 동맹의 구조 속에서 소련이 자신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주권이 훼손당할 수 있는 행동을 가급적 피하면서 타국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동시에 자신의 주권을 독립적으로 수호하기 위해서 동맹조약을 맺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맹을 결성할 경우 동맹국 간 주권 훼손을 비롯한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군사차원의 협력을 증진시키되 동맹관계까지로 발전시키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중 하나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109) 냉전이나 탈냉전 시

^{106) 1989}년 등소평과 흐루시초프의 만남에서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볼 수 있다. http://book.people.com.cn/GB/108221/14266742.html (검색일: 2013년 4월 1일)

¹⁰⁷⁾ 鄧小平,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 96, 282; 鄧小平, 『鄧小平思想年譜(1975-1997)』, (北京: 中共中央文獻出版社, 1998), p. 3, 412.

¹⁰⁸⁾ 예전 주소련 중국대사였던 리평린(李鳳林)과의 인터뷰의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news.163.com/09/0410/11/56HLRQF1000120GR.html (검색일: 2013년 4월 2일)

^{109) 『}環球時報』 2012년 7월 2일.

http://military.china.com/top01/11053250/20120702/17291311.html (검색일:

대의 양자나 다자 동맹은 모두 실질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국가가 있기 마련이다. 동맹국 간의 불평등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게 의존하는 형태의 동맹이나 상설의 연합군사지휘기구 등의 창설로 인해 상하관계가 뚜렷해지면서 형성된다. 동맹국간의 불평등은 나토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맹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이 북한과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중·북 동맹은 중국이 자국보다 약한 국가와 맺은 것으로 중국의 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사실상 북한과의 동맹조약 체 결 이전부터 중국은 강대국의 위치를 점하면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특히 중·북 간에 모순이 발생할 경우 북한은 결국 중국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마오는 의도적으로 북한의 주 권을 침범하거나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거나 스탈린처럼 지나치게 북한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110) 마오 뿐만 아니라 덩샤오핑 역시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모든 국가는 그 국가의 상황에 기반을 두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문제에서 동 일한 해결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중국은 북한의 한 반도 통일 계획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는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한 다." 111) 2006년 귀보슝(郭伯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역시 이러한 중국의 내정 불간섭과 관련하여 북한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했다. "북한은 주권 국가이므로 독자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사태를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라며 "중국이 조선에 대하여 이래라저래라 강요 할 수는 없다"고 했다.112)

²⁰¹³년 5월 9일).

^{110) &}quot;停戰談判前後的中朝分岐 -- 朝鮮戰爭與中朝同盟," http://news.xinhuanet.com/2013-05/07/c_124672913.htm (검색일: 2013년 5월 10일); 소련과 달리 중국은 북한의 국내정치에 직접적인 간여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련의 빈번한 간섭에 북한은 매우 예민하게 반응했으며 소련에 대한 경계심을 가졌다.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1), p. 76.

^{111) 1987}년 5월 덩샤오핑과 김일성의 회담에서 덩샤오핑의 발언이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鄧小平年譜(1975-1997)』,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2004), pp. 1190-1191.

^{112) 2006}년 7월 19일 미국 국방대학에서 궈보슝의 연설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

중국은 소련이 자국 또는 다른 사회주의국가들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불만을 느꼈으며 마오는 타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다.113) 동맹이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만큼 내정간섭을 원치 않는 중국에게는 약소국들과 동맹을 맺는 것 역시 쉽게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이다.

중국은 과거 '백년국치'(百年國恥)의 경험으로 주권에 더욱 민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동맹이 중국인에게 국가주권 및 국가의 존엄성을 해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 맹을 결성하지 않으려고 한다.¹¹⁴) 결국 중국은 동맹을 이용하여 자국을 관리하려는 타국의 시도 또는 자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하는 일을 피하 길 원한다.

다

http://www.nytimes.com/2006/10/05/world/asia/05iht-nuke.3047454.html?_r=0 (검색일: 2013년 6월 25일).

¹¹³⁾ 마오가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는 명시적으로 북한과 북베트남을 자제시키기 위한 중국의 개입을 요청했다. 미국의 이런 제안에 대해 저우언라이는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베트남에 대해서는 '역사적 특수성'과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불간섭을 언급하면서 북베트남에 대한 개입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동맹은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준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2000), pp. 254-261; Memorandum of Conversation, 22 October 1971(4:15 p.m.-8:28 p.m), pp. -7, 16; Memorandum of Conversation, 23 February 1972(2:00 p.m.-6:00 p.m.), p. 6; 조동준, "미·중 대화에서 나타난 적수게임과 동맹게임: 한반도 사례와 베트남 사례 비교 연구", 김세균 (편),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pp. 248-250.

¹¹⁴⁾ Mercy A. Kuo, Contending with Contradictions: China's Policy toward Soviet Eastern Europe and the Origins of the Sino-Soviet Split, 1953-1960, (Lanham: Lexington Books, 2001) p. 148; '백년국치'로 인해 중국이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주장하는 기존연구는 매우 많다. 다만 이는 심증적인 근거만 있을 뿐이며 이를 실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오늘날 중국의 대외정책이 과거에서 이어지는 백년국치의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Jae Ho Chung, "Decoding the Evolutionary Path of Chinese Foreign Policy," East Asia, Vol. 28, No. 3 (2011), pp. 177-179.

Ⅲ. 동맹 와해의 경험과 동맹 불체결

본 장에서는 과거의 동맹 경험이 오늘날 동맹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국가가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국가 지도자들은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들을 면면히 따져보고 손익 계산을 하게 된다. 즉 과거의 특정 정책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면 재차그와 같은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정책이 크게 실패했다면 그 것을 되풀이할 개연성은 적다는 의미이다.115)

한 국가가 동맹으로 인해 과거에 국익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번의 동맹 정책을 결정할 때 선뜻 결성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레이터(D. Reiter)의 연구를 통해 과거 동맹의 경험과 동맹 정책 결정 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레이터는 국가가 동맹조약을 체결하는 것과 체결하지 않고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 두 가지의 선택지를 두고 어 떤 결정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왔는가를 따져본다고 주장한다. 즉, 동맹 의 결성여부는 과거 동맹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의해 결정되며 만약 과 거의 정책이 성공했다면, 이번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정책을 선택하며 반 대로 실패했다면 과거와의 것과는 반대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1. 동맹 파트너로부터의 방기

동맹에 대한 의무불이행

¹¹⁵⁾ Dan Reiter, "Learning, Realism, and Alliances: The Weight of the Shadow of the Past," *World Politics*, Vol. 46, No. 4 (1994), pp. 490-526.

동맹국 간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꾀할 수 있다. 중국은 소련과 동맹을 결성하여 미국의 위협에 대처가능한 군사적 지원을 받길 원했다. 또한 중국은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을 위해 수반되어야할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소련이 중국에게 가지고 있던 의심을 불식시키고자 건국 이후 1년이 갓 지난 시점에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다. 116) 하지만 소련은 중국에게 유상으로 무기와 장비 등을 제공했으며 전쟁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 많은 이익을 얻어냈다. 117)

소련이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모습은 1950년대 후반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 중·소 양국은 1957년 10월 15일 핵기술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형무기 생산과 군사기술 장비 및 중국원자력 공업 건설에 관한 협정'(關於生産新式武器和軍事技術裝備以及在中國建立綜合性原子能工業的協定)(이하 국방신기술 협정)과 1958년 9월 29일 '중국원자력 공업을 위한 소련의 기술원조 제공에 관한 보충협정'(關於蘇聯爲中國原子能工業方面提供技術援助的補充協定, 이하: 核協定)을 체결했다.118) 하지만 1959년 6월 소련은 원자폭탄 샘플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중국에 통보했으며 이후 중·소 양국은 1957년 체결했었던 '국방신기술 협정'을 파기했다. 이는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 발생한 사건으로 중국은 소련이 미국의 환심을 사고자 이와같은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즉 중국은 소련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자국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생각했다.119)

¹¹⁶⁾ 중·소 동맹 조약 체결 이전부터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제2의 티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의심했다. 劉德喜, 『從同盟到夥伴: 中俄(蘇)關係50 年』(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5) p. 153.

¹¹⁷⁾ 沈志華 主編, 『中蘇關係史綱: 191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pp. 127-138.

¹¹⁸⁾ 沈志華, 『蘇聯專家在中國(1948-1960)』 (北京: 新華出版社, 2009), p. 327.

¹¹⁹⁾ 吳冷西, 『十年論戰』(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9), pp. 206-207, 332; Dong Wang, "The Quarrelling Brothers: New Chinese Archives and a Reappraisal of the Sino-Soviet Split," *CWIHP Working Papers*, No. 49, p. 17; V. M. Zubok and Konstantin Pleshakov,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From Stalin to Khrushchev*,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국방신기술 협정 파기를 시작으로 1960년 6월 16일 소련 지도부 는 중국에서 기술 이전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인 1390명의 소련인 전문가 모두를 조속히 철수시키겠다고 전달했다. 이와 같은 소련의 일방적인 통 보는 기존의 중·소 동맹 조약을 부인하고, 소련인 전문가들은 물론 전 문가들과 관련된 343개의 계약서 및 보충서와 257개 항목의 과학기술 협력 항목을 폐지함을 의미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은 무역 분야에서도 중국에 제약을 가했으며 차별적인 정책을 적용시켰다.120) 소련의 이러 한 조치가 있기 전, 중국은 1959년 6월 소련으로부터 '핵 기술 관련 군사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소련 의 원조가 필요했던 중국은 1959년 9월 23일, 12월 29일과 1960년 1 월 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협정에 따라 원조해 줄 것을 소련지도 부에게 거듭 요청했다.121) 중공중앙정치국 상무확대회의에서 소련 전문 가 철수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중국 외교부는 주중 소련 대사관을 방 문했다.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부탁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련의 행동에 대해 "소련이 전문가를 철수시키는 행동은 중소우호 조약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사회주의국가 간 우호관계의 원칙을 준수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122)

소련의 일방적인 협정 파기와 전문가 철수는 동맹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123) 중국은 동맹 파트너가 동맹 조약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방적으로 협정을 파기하는 등의 방기를 경험하게 되었다.124) 갑작스런 소련의 전문가 철수와 협정 파기는 중국의 경제발

Press, 1996) p. 228.

^{120) 1964}년 2월 4일 중국공산당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 모리 카즈꼬 지음, 김하림 옮김, 『중국과 소련: 그 300년의 역사 그리고 사회주의는 재생할 것인가』, (서울: 사민서각, 1990), pp. 74-75.

¹²¹⁾ 沈志華, 『蘇聯專家在中國(1948-1960)』, (北京: 新華出版社, 2009), p. 340; 吳冷西, 1999, pp. 335-343.

¹²²⁾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周恩來年譜(1898~1976)』,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p. 894.

¹²³⁾ 저우언라이는 소련의 일방적인 전문가 철수가 중국에게 새로운 고난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周恩來年譜(1898~1976)』,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p. 903.

^{124) 8}월 10일 회의를 끝내면서 마오쩌둥은 소련으로부터 '방기'를 당할까봐 우

전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으며 동맹 와해에 한 걸음 다가섰다.

동맹 파트너의 지워 거부

동맹은 특정 대외정책에 대한 동맹국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한다. 중국은 소련이 동맹 파트너로서 자국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길 원했다. 하지만 소련은 중국의 몇몇 지원 요청들을 외면했으며 오히려 중국에게 비판만 가했을 뿐이다. 예컨대 1959년 8월 티베트를 둘러싸고 중국과 인도 사이에 무력 분쟁이 발생하자 중국은 소련에게 자국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련은 중국의 기대와는 달리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후 소련의 관영 타스(Tass) 통신은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9월 9일 "중·인 양국이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자의 세력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전통적 우호 정신에 기반으로 하여 서로의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흐루시초프는 중·인 분쟁과 관련해 처음에는 중립적이었으나 나중에는 인도를 두둔하고 오히려 중국을 비판했다. 즉 소련은 "인도는 중립국이므로 중국은 인도와 단결해야 한다. 중·인 국경군사충돌은 잘못된 사건"이라고 발언하면서 중국을 비판하고 인도에게는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무기를 제공했다.125)

소련은 중국이 발표한 인도의 선제공격 보도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두고 흐루시초프의 미국 방문을 방해하기 위한 계략이라고

려했다. 吳冷西, 『十年論戰』,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9), p. 339.

¹²⁵⁾ 戴超武, "中印邊界衝突與蘇聯的反應和政策," 沈志華, 李濱 主編 『脆弱的聯盟: 冷戰與中蘇關係』,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0), pp. 346~373; Dong Wang, "The Quarrelling Brothers: New Chinese Archives and a Reappraisal of the Sino-Soviet Split," *CWIHP Working Papers*, No. 49(2005), pp. 19-20; 1962년 중·인 국경분쟁 발생 초기에 소련은 중국을 지지하였지만 5일 만에 중립적인 태도로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달리 북한은 분쟁 발생 이후 즉시 중국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련과 북한모두 중국의 동맹국이지만 이처럼 매우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龐族, 楊鑫宇, "從同盟到夥伴: 中朝關係的歷史演變," 『重慶社會主義學院學報』, 第3期(2008), p. 84; 소련의 대 인도 무기 공급에 대해서는 劉曉, 『出使蘇聯八年』,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8), pp. 150.

생각했다. 흐루시초프는 아이젠하워(D. D. Eisenhower)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으로 1959년 9월 중국을 방문했다. 126) 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을 고려했으며 어떤 이슈에서도 중국을 지지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27) 그의 이러한 모습은 중국 지도자들을 크게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 흐루시초프에게 천이(陳毅) 중국 외교부 부장은 "소련과 중국은 둘 다 사회주의국가일 뿐만 아니라 소련은 심지어사회주의 진영의 중심이다. 중·인 국경분쟁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 간의 충돌이며 이는 자본주의국가가 먼저 도발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사회주의국가를 지지하기보다 오히려 자본주의국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128) 며칠 후 소련 대사를 만난 저

¹²⁶⁾ 흐루시초프는 아이젠하워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노력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위인이 될 것"이란 말에 자신감을 얻었다. Memorandum of conversation of Eisenhower's private conversation with Khrushchev, 15 September 1959,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 (FRUS), 1958-1960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3), Vol. X, part 1, p. 409.

¹²⁷⁾ 당시 중국에는 미국인 5명이 구금되어 있었다. 흐루시초프는 중국에게 그들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이를 두고 자신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 장했다. 뿐만 아니라 흐루시초프는 마오쩌둥에게 독일 문제와 연관시켜 '두 개의 중국'원칙을 언급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흐루시초프의 이러한 언행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동맹국인 중국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Dong Wang, "The Quarrelling Brothers: New Chinese Archives and a Reappraisal of the Sino-Soviet Split," CWIHP Working Papers, No. 49(2005), pp. 21-23; 1962년 10월 소련은 잠시나마 중국에게 우호적인 태도 를 취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은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인해 미국과 긴장상태에 놓 여있었고 자국을 지지해줄 세력으로 중국이 필요했다. 중국은 소련의 우호적인 태도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으며 사실상 1958년 이후 계속 소련을 의심해 왔다. 중국이 바라보기에 소련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할 뿐이었다. 劉曉, 1998, pp. 152-154; 1958년 중·인 국경분쟁 당시 소 련이 중국을 저버리고 인도를 지지한 이유가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고 인도와 같 은 비동맹운동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로는 pp.185-186. Harry Harding, "China's Changing Roles in the Contemporary World," Harry Harding (eds.), China's Foreign Relations in the 1980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4), pp. 185-186.

우언라이는 "중·인 국경문제와 관련해서 소련이 '철저히 중립을 지키겠다'가 한 발언은 중국으로 하여금 매우 놀라게 했다.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 간의 충돌에 대해 다른 사회주의국가가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은 참으로 새로운 현상"이라고 언급했다.129)이와 같은 발언을 통해서 동맹국으로부터 방기를 당한 중국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즉, 소련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서 중국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거나 오히려 인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소련의 이러한 행동이 중국에게는 동맹국의 배신으로 여겨졌다.130)소 련이 중국을 방기하는 모습은 1962년 10월 인도의 침공으로 재차 발생한 중·인 국경분쟁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즉, 소련은 중국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게 가한 중국의 반격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따라서 중국은 동맹 파트너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기를 경험한 것이다.

1950년대 말 중국은 '대약진'(大躍進)운동 실패로 인해 국내의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다. 게다가 미국의 인도차이나 전쟁 확대와장제스(蔣介石)의 중국 대륙에 대한 반격 시도 및 중·인간 국경을 둘러싼 일촉즉발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왕자샹(王稼祥) 중공중앙대외연락부 부장은 "소련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어느 때보다도 소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은 동맹국인 중국을 지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중·소간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서로를 비난하기에 급급했다. 이는 오래 전부터 훼손되어 온 감정과 신뢰들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서로에 대한 더 많은 불신과 오해가 쌓이는데 촉진제 역할만 했다.131)중국이 처한 국내적·대외적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느 때보다도 소련의 지지가 더욱 절실했지만 이는 중국의 기대에 그칠 뿐, 동맹국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방기만을 경험하게 됐다.

¹²⁸⁾ 吳冷西, 1999, p. 224.

¹²⁹⁾ 楊奎松, 『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2008), pp. 454-455.

¹³⁰⁾ 吳冷西, 1999, p. 332.

¹³¹⁾ 楊奎松, 2008, p. 465, 481.

국가들은 동맹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처한 상황 또는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이 상이함에 따라 국가 간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동맹 파트너와 의견이 일치할 경우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상이할 경우 자국의 의견을 고수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의견이 충돌하거나 자국의 정책을 펼치는데 동맹이 오히려 제약을 가할수 있다.132) 동맹국 간에는 자국의 상황과 이익에 따라 동맹 파트너를지원하지 않는 등 방기의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며 중국은 과거 동맹에서이를 경험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맹 불체결과 함께 강대국에게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 역시 특정 국가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을 언급한 이유도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것이라고 유추해 볼수 있다.

적과의 동맹 결성

동맹을 결성하는 요인에는 동맹파트너가 자국의 적대국과 동맹을 결성할 가능성을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중·소 동맹 체결 당시 중국의 주적은 미국이었으며 중국은 소련과의 동맹을 통해 미국의 대 중국 위협을 감소시키길 원했다. 1950년 동맹 체결 당시 두 국가는 조약원문에 명시했듯이 일본과 그 동맹국인 미국을 주적으로 상정했다. 즉건국 초기 중국과 소련은 주적을 공유하면서 동맹을 견고하게 발전시켜나갔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 소련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이러한 양상을 목격하면서 소련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물론 미국과 소련이 동맹 조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으나 소련은 미국과의 긴장 완화 과정에서 자신의 동맹 파트너인 중국을 상당 부분 방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1960년 7월 14일 중·소 관계를 논의하고자 소집된 베이다이허

^{132) 『}環球時報』, 2012년 7월 2일, http://military.china.com/top01/11053250/20120702/17291311.html (검색 일: 2013년 5월 10일).

(北戴河) 중공중앙공작회의에서 저우언라이는 "1959년 10월 흐루시초 프의 엉덩이는 이미 미국 쪽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국이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133) 저우의 이런 발언은 외부의 위협과 관련하여 중·소 간 심각한 인식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동맹국인 소련이 적대국인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며 동맹이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자국을 향한 적대세력의 형성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국에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1963년 7월 모스크바에서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소련은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부분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양당 회의와 '핵실험 금지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목격한 중국은 1959년 미·소 간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의 상황을 떠올렸다.134) 즉 중국은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핵무기 샘플 및 관련 기술 데이터를 중국에 제공하지 않기로 통보한 사실과 1958년과 1962년 중·인 국경분쟁에서 중국을 비난한 사실 등을 상기했던 것이다. 중국은 이와 같은 '중국을 파는'소련의 행위가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며, 소련이 대미데탕트를 달성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중국에게 있어 소련이 영국, 미국과 체결한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소기 핵무기를 독점하고 동시에 중국을 구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135) 다시 말해 중국지도부는 이제 소련이 "미국과 연합하여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으로 급선회하였다고 받아들였다.136)

마오쩌둥이 호찌민(Ho Chi Minh)에게 중국의 대 소련 불만을 토로했고 이는 마오와 호찌민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¹³³⁾ 楊奎松, 2008, p. 332.

¹³⁴⁾ 과거 동맹국이 자국의 적대국에게 유화정책을 펼친 경험을 한 국가는 방기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Victor D.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 45.

¹³⁵⁾ 劉克明, "中蘇關係40年的歷史教訓," 『東歐中亞研究』第1期 (2000), p. 65.

¹³⁶⁾ 최명해, 『중국-북한 관계』, (서울: 오름, 2009), p. 217.

호루시초프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및 인도네시아 심지어 유고슬라비아까지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소련의 협력 대상국 중 중국이 예외이며 그 이유는 중·소 간 의견이 상이하기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흐루시초프의 의견은 미국, 영국, 프랑스및 인도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진심으로 협력해 나갈 의지가있다고 여겨진다. 소련은 중국에서 전문가를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각종 설비를 제공하지도 않는다. 반면 인도에게는 전문가를 파견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비와 기계를 제공하고 있다. … 나는 흐루시초프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137)

결국 소련은 동맹국인 중국보다는 중국의 경쟁국이었던 인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마오와 호찌민의대화와 〈표 3-1〉을 통해 중국이 동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방기를 당했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동맹국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8) 〈표 3-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련의 '방기'에 대해 중국은 '배신', '저버리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이는 중국이 소련에게 기대했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등 동맹으로부터의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었던 중·북 동맹을 살펴보면 북한 역시 1960년대 중국과 적대적이었던 소련과 동맹을 결성하였으며 특히 1965년 이후에는 소련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갔다. 그러나 중·소동맹과 달리 중·북 동맹의 경우 북한이 중국의 적인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미 제국주의와 수정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중국과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¹³⁷⁾ 楊奎松, 2008, p. 463.

¹³⁸⁾ 소련은 형제국가가 자국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봉쇄, 전복 또는 군사적 위협 등의 방식으로 압력을 가했다. 중국은 소련이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에게 가한 전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 중국은 소련이 중국에게 가할 일련의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에 두려움을 느꼈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周恩來年譜(中)』(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pp. 340~341.

대조적으로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동맹 제안을 거절한 것은 물론 자신의 적인 소련과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중국은 자국의 동맹국이 자신 의 주적 또는 경쟁국과 결탁하는 과정을 목격했으며 이는 중국으로 하여 금 동맹 결성의 가능성을 재차 감소시키는 작용을 했다.

표 3-1. 소련의 '방기'에 대한 중국의 발언

연도	사건	발언자	발언 내용
1962.11	중·인 국경분쟁	章漢夫139)	호루시초프는 중국을 비판하고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을 팔아넘기기까지했다. 그리고 인도에게 군사원조를 제공했으며 소련의 이러한 행위는 동맹국을 배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0)
1962.11		章漢夫	호루시초프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이 필요했다. 따라서 중국에게 잠시나마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자 중국의 따귀를 때렸다 (slap your face).
1962.11	미·소 핵실험금지조 약 체결	章漢夫	- 호루시초프는 핵확산 문제에서 적과 공모하여 중국을 팔아넘겼다 핵확산 조약 체결과 관련하

		여 흐루시초프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중국 을 구속하는 것이었다.
1962.11	ZHANG Yan	우리는 흐루시초프가 프롤레 타리아가 아니며 배신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1962.11	劉一寧	호루시초프는 우리의 적과 공 모하고 있으며, 소련과 공산 주의를 모두 거부하고 있다. 그의 모든 행동의 목적은 중 국을 반대하고 중국, 중국공 산당과 마오쩌둥을 쓰러뜨리 기 위한 것이다.

출처: Dong Wang, "The Quarrelling Brothers: New Chinese Archives and a Reappraisal of the Sino-Soviet Split," *CWIHP Working Papers*, No. 49, pp. 62-70 해당 사건에 따른 발언 정리.

2. 동맹국으로부터의 군사 위협의 증대

일반적으로 동맹국 간에는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동

¹³⁹⁾ 장한푸(章漢夫)는 외교부 부부장, 당위부서기, 중앙국제활동지도위원회위원, 중 앙외사영도소조 제1부조장 등을 역임했다. http://www.wjda.gov.cn/ReadNews.asp?NewsID=579 (검색일: 2013년 6월 29일)

^{140) 1960}년 10월부터 1962년 5월까지 인도는 소련에게 총 94기의 항공기를 판매할 것을 요청했다. 94개의 항공기는 안토노프(Antonov) 32기, An 수송기 12기, 미그(MiG) 헬리콥터 26기와 일류신(Ilyushin IL-14s) 24기이다.

맹 체결국들의 공격 대상은 제3의 국가나 당이다. 동맹국 간에 군사충돌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서로의 군사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동맹 파트너의 군사력 및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 이와 반대로 동맹 파트너로부터 안보의 보장이 아닌 위협을 느끼게 된다면 동맹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은 물론 동맹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중·소 관계가 공식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국은 소련이 자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인식했다.

소련이 중국에게 가한 군사적 위협은 다음과 같다. 1960년대 소련은 중·소와 중·몽(골) 접경지역에 군사시설을 강화했다. 당시 소련은 자신이 보유한 미사일의 3분의 1을 이 지역에 배치했으며 몽고에 파견한 부대의 수도 점차 늘려나갔다. 소련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중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다.142) 뿐만 아니라 1966년 1월 소련은 몽골과의 군사동맹의 성격을 가미한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소원했던 북한과의관계를 회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했다.143)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련은 심지어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의 집단인 아시아 집단 안보수립을 계획했다.144)

소련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중국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

¹⁴¹⁾ David H. Bearce, Kristen M. Flanagan and Katharine M. Floros, "Alliances, Internal Information, and Military Conflict Among Member-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0, No. 3 (2006), pp. 595-625.

¹⁴²⁾ 당시 소련으로부터 느낀 중국의 위협은 1989년 5월 16일 당샤오핑이 중국을 방문한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와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소련이 중·몽 접경지역에 파견한 군대 수는 1960년대 후반 100만에 도달했다. 劉克明, "中蘇關係40年的歷史敎訓," 『東歐中亞研究』第1期(2000), p. 65; 楊成緒, "獨立自主和平外交政策的豊碩成果," 『瞭望新聞週刊』,第41期(1999), p. 6. 143) 최명해, 『중국-북한 관계』(서울: 오름, 2009), p. 259.

¹⁴⁴⁾ Arnold L. Horelick, "The Soviet Union's Asian Collective Security Proposal: A Club in Search of Members," *RAND Paper*, P-5195(1974), http://www.rand.org/pubs/papers/P5195.html; Shirin Tahir-Kheli, "Chinese Objectives in South Asia: "Anti-Hegemony" vs. "Collective

Security", Asian Survey, Vol. 18, No. 10 (1978), p. 999.

었다. 따라서 중국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했다. 첫째, 제3세계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했다. 중국은 미얀마, 네팔,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및 북한과 국경조약 또는 우호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맞닿고 있는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 145) 이러한 조약들이 모두 1960년부터 1963년까지 체결되었다는 점은 중국이 소련과의 관계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3선 건설'(三線建設)에 착수했다. 제3선 건설은 미국과 소련이 중국을 공격할 것을 우려해 중공업을 비롯한 방위산업 시설투자를 내륙지역에 집중시킨 것이다. 당시 미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위협도 있었지만,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 아닌, 소련이었다. 제3선 건설과 관련하여 마오쩌둥은 저우언라이의 인솔 하에 진행될 수 있는 소조(小組) 구성 계획을 제시했고, 어떤 부총리도 이 작업을 방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146) 이를 통해마오는 제3선 건설을 매우 중요시 여겼으며 제3선 건설의 목적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했을 때 당시 중국이 인식한 위협의대상과 그 크기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셋째, 마오쩌둥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베트남, 북한과의 군사동맹 조약 체결을 모색했다. 마오쩌둥은 1960년 3월 20일 저우언라이에게 "만약 조선과 베트남이 (중국과) 군사원조 조항이 포함된 우호동맹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조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147) 이후 중국은 1961

¹⁴⁵⁾ 王泰平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 1957-1969(第二卷)』,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8), pp. 94-105; 劉樹發 主編, 『陳毅年譜(下)』, (北京: 人民出版社, 1995), p. 938.

^{146) &#}x27;제3선 건설'은 1964년 8월 중앙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되었다. 제3차 5개년 계획(1966-1970년)은 원래 농업과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려고 했다. 그러나 마오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3선 건설'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바르바라 바르누앙·위창건 지음, 『저우언라이 평전』, (서울: 베리타스북스, 2007), pp. 247-249; 薄一波, 『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2008), p. 1200.

¹⁴⁷⁾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周恩來年譜』,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p.

년 7월 북한과 '중·조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반면 베트남은 중국이 제의한 군사동맹 성격을 포함한 우호조약 체결 제의를 거절했다.148)호찌민은 중국과 동맹을 결성하면 소련과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두려웠으며 중·소 관계에서 객관적인 '중재자'역할을 자임했다.149) 그러나김일성은 이념적으로 대중 '편승'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중국의 리더십을 옹호해 하는 동시에 소련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중·소 양국간에 전략적 균형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주변국가와의 우호적 관계 형성 및 군사동맹 체결, 중국 내 침공이 어려운 내륙지방에 군수산업시설 건설 등의 방식으로 소 련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 대처해나갔다. 1970년대 중국이 미국과 관 계를 개선한 것 역시 소련에 대항하고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 국에게 있어 소련은 자국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의 위협을 함께 대처하는 '친구'라기보다 오히려 자국에게 위협을 가하는 위험하고 신뢰할 수 없는 동맹 파트너였다.

상술한 내용 이외에도 1979년 중·소 교섭 당시 중국이 소련에게 제안한 내용들을 통해 중국이 소련으로부터의 느낀 위협을 재차 확인할수 있다. 중국이 소련에게 '남과 북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위협', 즉중·소 국경과 중·몽 국경의 소련군 및 소련의 대 베트남 원조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150) 중국은 소련이 자국을 둘러싼 형태의 위협을 가

^{874.}

¹⁴⁸⁾ Nguyen Mahn Hung, "The Sino-Vietnamese Conflict: Power Play among Communist Neighbors," *Asian Survey*, Vol. 19, No. 11 (1979), p. 1038.

¹⁴⁹⁾ 중국과 베트남이 공식적인 동맹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오쩌둥은 중·소 이념논쟁에서 베트남이 중국을 지지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호찌민은 마오쩌둥과 흐루시초프의 이념적 간극의 깊이를 과소평가했으며 자신만이 중국과 소련을 중재할 수있다고 자부했다. Qiang Zhai,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 (Car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p. 88. 호찌민은 중·소 간 '중재'의 역할을 자체했고 이러한 호찌민의 모습에 마오는 배신감을 느꼈다. 마오는 호찌민이 소련보다는 중국을 지지해줄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오의 배신감은 중·인 국경분쟁 당시 소련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유사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¹⁵⁰⁾ 錢其琛 著, 『外交十記』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3), pp. 8-24; 高正禮,

하고 있다고 여겼으며, 이를 해결해야만 두 국가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151) 즉, 1960년대 공식적으로 중·소 간의 대립이 시작되면서 1989년 중·소 화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국은 계속해서 소련으로부터 위협을 느꼈다.

동맹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교류하면서 동맹국 간 군사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제3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과 소련은 오히려 서로를 겨냥하면서 동맹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1989년 덩샤오핑은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에서 과거의 과오와 미해결문제를 들춰내지 말고 미래의 것만을 논하며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제의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관계는 과거 중·소 동맹과 같은 관계가아닌 정상국가의 관계를 맺어나갈 것을 요구했으며 덩샤오핑은 "과거 동맹과 대립 관계는 모두 실패로 끝이 났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소 관계는 반드시 평화공존 5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은동맹이 자국의 안보위협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오히려 경쟁 및 모순만을 생성해낼 수 있다고 판단한다.152)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와 동맹국과의 대립을 경험한 중국은 오늘 날 미국과의 관계 모색에 있어서 동맹 불체결을 근간으로 삼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동맹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중·미 관계는 반드시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동맹 불체결과 대립적이지 않은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이며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를 만들어

[&]quot;鄧少平與中蘇論戰," 『黨史研究資料』,第7期(2003), p. 24.

¹⁵¹⁾ 중국의 포위 심리(siege mentality)와 관련해서는 Fel-Ling Wang, "Self-Images and Strategic Intension: National Confidence and Political Insecurity," in Yong Deng and Fei-Ling Wang (eds.), *In the Eyes of the Dragon: China Views the World*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1999), pp. 21-46.

^{152) 『}人民日報』 2004년 8월 13일, http://www.people.com.cn/GB/shizheng/1026/2706318.html (검색일: 2013년 5월 17일).

가야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강대국들은 항상 대립적인 관계이거나 동맹을 결성했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대국 관계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서 강대국 간의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중·미 신형의 군사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구시대적인 '제로섬(zero-sum)'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특히 미국이 '제로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만 모든 국가들이 협력적인 안보관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제가 성립될 때 중·미간 신형의 군사관계는 실질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중·미군사관계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고 과거의 길을 다시 걸을 수밖에 없다.153)

중국이 과거 경쟁과 대립이 난무했던 동맹국의 관계가 아닌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강대국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길 원한다. 이러한 중국의 생각은 향후 중·미관계 발전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한 '신형 대국관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사고, 정책 및 행동 등을 발전시켜야 하며, 새로운 사고 방식과 철두철미한 행동으로 과거 강대국 간에 발생했던 대립과 충돌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154) 중국은 미국에게 냉전 시대에 팽배했던 제로섬과같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국가를 친구나 적으로나는는 이분법적인 '동맹'식 사고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은 국가간 대립과 협력은 동맹조약 체결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과거의 동맹 경험을 통해 깨달았다. 요약컨대 중국이 '동맹 불체결'을 시행한 요인이 과거 동맹 와해의 경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153) 『}解放軍報』, 2013년 5월 5일.

http://world.people.com.cn/n/2013/0505/c1002-21368811.html (검색일: 2013년 5월 8일).

^{154) 『}人民日報』, 2013년 5월 4일.

3. 동맹 딜레마의 부재와 동맹의 유지

1961년 7월 중국과 북한은 '중조우호협력조약' 체결과 함께 동맹관계로 발전했으며 오늘날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비록 중국이중・북 동맹관계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 관계가종결되었다고 판단할 수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북 동맹을 살펴보면 중・소 동맹과는 분명 상이한 모습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동맹의 딜레마를 겪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중・북 관계에서 중국이 강대국의 지위에 있는 만큼 방기보다는 연루의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연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은 드물었다.

북한은 중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게 중국의경제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점으로 인해 중국은 여타 국가들과는 달리 외교적·경제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북한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은 불안정한 북한의 정권을 더욱 하찮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이 가진 레버리지를 잃게되거나 현상을 변경하기를 원치 않는다. 155)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지속되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은 다소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북한에게 있어 중국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게 북한을 억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미국과 북한사이에서 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56)

1950년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이후 '혈맹(血盟)'의 관계가 이어져온 중국과 북한은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그 유대감이 약화되고 있

¹⁵⁵⁾ Sangit Sarita Dwivedi,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 Asymmetric Alliance." *North Korean Review*, Vol. 8, No. 2 (2012), pp. 88-89.

¹⁵⁶⁾ 북한으로 인해 중국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You Ji,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Issue. 28 (2001), pp. 387-398.

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 중국이 받을 수 있는 피해의 우려가 급증되면서 중국은 동맹을 비롯한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희석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표 3-2〉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2006년이후 2010년까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57) 하지만 여전히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했던 것처럼 아직 중·북 동맹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맹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이 중·소 동맹에서와달리 중·북 동맹에서는 중국이 동맹의 딜레마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면서 국제사회와 협상을 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동으로 의해 의도치 않은 일에 연루될 수 있는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중·북 동맹을 두고 전략적으로 모호하게행동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다.

표 3-2. 중·북 관계에 대한 중국 외교부 발언

날짜	질문 내용	외교부 발언		
2006.1.19.ª	중·북 관계의 실질적 변화 유무	중·북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서 공 동의 발전적인 임무를 갖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각각 발전의 길을 걷고 있지만, 두 국가의 관계에는 변화가 없다. 즉, 두 국가 의 국민, 정부 및 당의 전통적 우호관계는		

¹⁵⁷⁾ 사실상 중·북 관계가 소원해 지기 시작한 것은 냉전 이후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중국은 더 이상 '혁명 외교'를 주장하지 않았지만 김일성은 여전히 외교의 핵심을 '혁명'에 두었다. 이후 잇따른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수교 등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은 예전과 같은 긴밀한 관계가 아니었다. 중국과북한의 관계 변화 및 1980년대 중국과의 동맹 공고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에 대해서는 Jae Ho Chung, Myung-hae Choi,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1949-2010," The Pacific Review, Vol. 26, No. 3 (2013), pp. 250-252.

		불변한다.		
2006.10.10. b (북한 미사일 실험 발사, 핵실험 등 위기감 조성 시도)	중·북 동맹조약 수정 계획	(중국은) "중조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 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에 대한 수정 계획이 없다.*		
	중·북 관계	問: "중국은 북한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이자 긴밀한 동맹국"이라고 표현. 外交部: 중국이 북한과 동맹관계라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중국은 동맹 불체결을 추구하며, 다른 어떤 국가와도 등맹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북한과의 목계는 국가관계의 기본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이다.		
2008.5.29.°	중·조 조약	중·조 조약은 중·북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본 조약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도움을 준다.		
2009.6.2. ^d	중·북 관계	중국과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관계이다. 중 국과 북한의 관계 발전은 다른 국가관계 발전과 동일하며, 평화 5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동맹관계	중·북 관계는 정상적인 국가관계 이다.		
2010.6.24. ^e	중·조 조약 수정 혹은 폐기 계획 여부	체결 당시 역사적 상황하에 체결한 중·조 조약은 지금까지 중·북 관계의 발전을 촉 진 및 유지시켰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 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조 조약을 수정할 계획에 대해		

	서는 따로 들어본 적이 없다.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 홈페이지 (http://www.fmprc.gov.cn/mfa_chn/)에서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 발언에 근거하여 필자가 직접 작성.158)

a 2006년 1월 19일: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2318 67.shtml

b 2006년 10월 10일: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347104.shtml

c 2008년 5월 29일:

http://www.fmprc.gov.cn/mfa_chn/fyrbt_602243/t459874.shtml d 2009년 6월 2일: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565743.shtml

e 2010년 6월 24일:

http://www.fmprc.gov.cn/mfa_chn/wjdt_611265/fyrbt_611275/t7113

1991년 10월 덩샤오핑은 김일성과의 만남에서 동맹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과 북한 관계는 평화공존 5원칙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동맹이나 깨지지 않는 우의와 같은 것은 믿을 수 없으며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덩샤오핑이 북한과의 동맹관계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거나 공식적으로 동맹조약을 종료시킬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동맹은 결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

¹⁵⁸⁾ 최근 중국 국영 CCTV는 중·조 조약의 유효기간이 20년이며, 1981년과 2001년에 두 번에 걸쳐 연장한 바 있고, 현재 2021년까지 유효하다고 보도하였다. (http://news.cntv.cn/china/20110711/107044.shtml) 하지만 조약의 원문에는 유효기간을 명기하지 않았다.

하면서 중국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젠민(吳建民) 전 외교부 신문사 사장은 "북한은 중국의 이웃이므로 대북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중국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동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는 덩샤오핑의 생각은 중·북 관계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덩샤오핑의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진리"라면서 "중국은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159)

1991년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같은 기간 장쩌민 총서기는 중국을 방문하고 있던 일본 이시다 고우시로우(石田幸四郎) 공명당(公明黨)위원장과 회담을 했다. 그 회담 자리에서 장쩌민은 "중국과북한은 일찍이 함께 싸웠던 동지이며, 강한 유대감으로 묶여 있다. 그러나 중조 양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중국은) 평화 5원칙에 기반하며 이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라고 발언했다.160) 1993년에는 덩샤오핑이 북한의 원조요구에도 일부분만 응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일절 거절하는 등의 모습을보였다.161) 그리고 1997년 탕자쉬안(唐家璇) 당시 외교부부장은 "중조우호조약이 이미 세월도 많이 지났으며 이제는 형식적인 것으로 친선의 의미만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162) 그는 2003년에 중조조약에대해서 "중조조약의 군사원조 조항은 (냉전이라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원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상 성격은 우호 선린 조약이며, 군사조항은 사문화되었다"고 견해를밝혔다.163) 이처럼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중·북 동맹과 관련하여

¹⁵⁹⁾

http://phtv.ifeng.com/program/comment/detail_2013_05/09/25106519_2.sht ml (검색일: 2013년 5월 10일)

^{160) 『}朝日新聞(夕刊)』, 1991년 10월 8일.

¹⁶¹⁾ 북한의 김일성은 지난 해(199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중국에게 서한을 발송했으며 군사설비·에너지·기계·농업 원조의 제공과 새로운 정치·경제·군사협정의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한정적인 경제 원조에만 응하고 그 이외의 것은 일절 거절했다. 『동아일보』, 1993년 3월 4일.

^{162) 『}동아일보』, 1997년 3월 21일.

¹⁶³⁾ 고미 요우미 지음, 박종철, 정은이 옮김, 『중국은 북한을 멈출 수 있을 것인 가』, (서울: 코인미디어, 2011), p. 255.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인가'라는 질문에 일관적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북 관계 역시 그 관계의 오르내림이 있다.164)

당샤오핑과 김일성의 대화를 통해 중국의 동맹 불체결 정책을 재차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인 동맹 파트너도 아니며 그렇다고 북한을 쉽게 방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님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과거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 중·북 동맹을 결성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이 때 오늘날 중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 있는이상 단기간 안에 중·북 동맹을 종결시킬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보인다.

4. 소결

중국이 1950년대의 일변도 정책에서 1960년대 반미반소(反美反蘇)의 노선을 택하면서 제3세계 및 주변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꾀한 것은 모두 동맹국으로부터 방기를 당하면서 생긴 변화로 볼 수 있다. 1989년 중국과 소련이 공식적으로 화해하기 전까지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많은 위협을 느꼈으며 동맹을 통해 위협을 감소시키기보다 오히려 동맹 파트너가 자국의 주적이 되어 안보를 위협하는 양상이 발생했다. 이는 동맹 형성의 원인 중 하나인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며 중국은 결국 동맹을 통해서 위협을 해소시키지 못했다.

과거 동맹 결성의 경험을 통해 중국은 동맹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 인지를 철저히 학습했을 것이다. 건국 초기 중국은 동맹국인 소련으로부

¹⁶⁴⁾ 북한 역시 중국의 일관되지 않은 태도에 전략적 의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 중국 의심은 1956년 북한의 종파사건 이후 형성되었다. Jae Ho Chung, Myung-hae Choi,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1949-2010," *The Pacific Review*, Vol. 26, No. 3 (2013), p. 258.

터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여타 일반 동맹과 마찬가지로 중·소 동맹 역시 동맹의 딜레마 발생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소련에 비해 약소국이었던 중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방기를 경험했다. 이후 두 국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마침내 연루와 방기의 동맹 딜레마를 넘어선 직접적 군사대립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중·소간 무력충돌로 인해소련은 중국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동맹조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동맹 결성 초기 단계에는 분명 이익을 얻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봤을 때는 이익 그 이상의 비용을 치룬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맹체결국이 대규모의 전쟁을 겪게 되더라도 동맹 파트너가 항상이를 적극적으로 군사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 냉전 전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동맹 파트너가 군사충돌에 개입되었을 경우, 반드시직접적인 군사지원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979년 2월 중국과 베트남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 이전, 1978년 11월 베트남과 소련은 군사동맹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했다. 중국과 베트남 간 충돌이 지속되는 동안 소련은 헤이롱장(黑龍江)성 동남부 도시인쑤이펀허(綏芬河)에서 약간의 군사훈련만을 시행했을 뿐 베트남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외에도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전을 준비하는 동안나토 동맹국인 독일과 프랑스는 결연히 반대의 입장만을 고수했다.165)중국은 자국의 경험 외에도 타국 간 동맹에서 발생하는 방기나 동맹 파트너들의 소극적인 지원 등의 모습을 통해 동맹의 장단점을 학습하고 있을 것이다.

중국의 '동맹 불체결'정책은 다른 나라들의 동맹 결성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만 중국에게 있어 동맹 불체결은 국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동맹 불체결은 중국이 독립 자주적으로 국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자국에게

^{165) 『}環球時報』, 2012년 7월 2일.

http://military.china.com/top01/11053250/20120702/17291311.html (검색일: 2013년 5월 10일).

유리하며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국제적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으며 공명정대하게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동시에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이 외에도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장애요소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강대국들의 탈선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166)

1998년 중국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발간한 『중국국방백서(中國的國防)』를 통해 동맹 불체결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냉전기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한 군비증강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167) 2013년 4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는 '중국 무장능력의 다양화운용(中國武裝力量的多樣化運用)'이란 제목의 국방백서를 발표했다. 백서에는 동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부 국가가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아시아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 대변인 겸 신문사무국 부국장인양위쥔(楊宇軍)은 백서 내용을 설명하고 발표하는 기자 회견에서 '동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군사동맹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지않으며,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방해한다."이와 같은 점을 보았을 때 중국은 분명 동맹이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냉전의 유물로 생각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168)

츠하오텐(遲浩田) 전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 겸 국방부장은 일 본 방위성 장관 회담에서 중국 국방정책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¹⁶⁶⁾ 孟慶英, "鄧小平處理對外關係的策略,"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 第3期 (1995), p. 3.

¹⁶⁷⁾ 中華人民共和國新聞辦公室, 『中國的國防白皮書』, (1998) http://www.mod.gov.cn/reports/201101/bpsz/2011-01/07/content_4218732 .htm (검색일: 2013년 4월 18일).

¹⁶⁸⁾ 국가간 '중국 무장능력의 다양화 운용'은 http://www.gov.cn/jrzg/2013-04/16/content_2379013.htm ; 백서 발표와 함께 동맹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힌 기자간담회는 http://military.people.com.cn/n/2013/0416/c1011-21154846.html (검색일: 2013년 5월 9일).

밝혔다. "중국정부는 냉전식 사고를 포기하고 새로운 안보관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 이는 군사동맹과 군비증강을 대신하여 상호신뢰와 공동의이익에 부합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며 국가들은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논쟁과 분쟁을 해결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냉전시대는 군사동맹을 기본으로 군비증강을 도모해 나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으며 이는 역사가 증명해 준다. 새로운 국제정세 속에서 군사집단을 확대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여느 국가의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보는 반드시 상호간의 신뢰와 공통이익을 추구하고 존중할 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169)

중·소 관계와 관련하여 소련 대사였던 리평린(李鳳林)은 "중·소 관계 연구를 통해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과거 두 국가가 범했던 잘못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만 중국과 러시아 간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한다.170) 이처럼 중국 지도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군사동맹이 평화와 국가안보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협력의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중국은 여타 강대국들과 달리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과거 동맹의 경험이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171) 장쩌민은 "평화는 무력에 의존해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군사동

^{169) 『}光明日報』, 1998년 2월 5일. http://www.gmw.cn/01gmrb/1998-02/05/GB/17594%5eGM3-0517.HTM (검색일: 2013년 5월 20일).

¹⁷⁰⁾ 李鳳林, "中蘇關係的歷史與中俄關係的未來," 沈志華 主編, 『中蘇關係史綱: 191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1), pp. 7-8.

¹⁷¹⁾ 자이동셩(翟東昇)은 중국이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이유가 소련 및 베트남과의 동맹 와해의 경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翟東昇, "不對稱相互依賴——中蘇,中越同盟反思之一," 『IT經理世界』,第10期(2007), p. 95. 하지만 중국과 베트남은 공식적인 동맹 조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1961년 12월 중국이 베트남에게 동맹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 『周恩來年譜(1898~1976)』,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8), pp. 874; Nguyen Manh Hung, "The Sino-Vietnamese Conflict: Power Play among Communist Neighbors," *Asian Survey*, Vol. 19, No. 11 (1979), p. 1038.

맹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군사동맹의 강화와 확대는 불안정적인 요소를 증가시킬 뿐이며 국제안보를 훼손시키기도 한다"고말했다. 이를 통해 동맹에 대한 중국의 생각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볼수 있다.172) 중국에게 있어 동맹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제에 불과하며 이러한 생각이 근간을 이루어 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¹⁷²⁾ 장쩌민 2001년 7월 17일 모스크바 대학에서의 연설

⁽최종 검색일:http://www.gov.cn/gongbao/content/2001/content_60978.htm).

Ⅳ. 결론

1. 연구 요약

본 연구는 1984년 발표한 중국의 동맹 불체결 정책이 시행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우선 중국이 여타 강대국들과 다르게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와 동맹 와해의 경험 등 두 가지 가설을 통해 살펴봤다.

우선 중국이 건국 이후 결성했던 중·소 동맹과 중·북 동맹의 대략적인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중국은 1984년 처음으로 '동맹 불체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날까지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을 설명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당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백서 등을 포함한 중국의 공식적인 문건, 지도자들의 발언 또는 기존연구를 통해 드러났으며 중국이 지속적으로 '동맹 불체결'에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3년 국방백서에서도 '동맹을 결성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연한 태도가 드러난다. 이처럼 중국은 지속적으로 동맹 불체결 원칙을 주장하고 있지만 1961년중・북 간 체결한 동맹조약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으며 북한이 현재 중국의 유일무이한 동맹국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중・북 동맹과 관련해서 중국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북 관계에 다양한 해석의여지를 남기고 있다.

주권 수호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발언들을 살펴봤다. '주권' 발언의 빈 도를 보면 매 차례 주권이 언급되고 있으나 이는 시기마다 조금씩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국대표대회와 전인대의 발언에서 등장 하는 '주권'의 사용 빈도만으로는 중국의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를 파 악하는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주권' 과 함께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그 결과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주권 수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맹을 결성할 경우 동맹체결국들의 주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과 같이 주권 수호에 대한 의지가 강한 국가일수록 동맹을 결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 동맹 불체결의 요인에 대한 또 다른 가설인 동맹 와해의 경험을 살펴봤다. 동맹이 와해된 사례로는 중·소 동맹이 있으며 과거 동맹의 경험이 오늘날 중국의 동맹 불체결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중국은 과거 중·소 동맹에서 소련으로부터 방기를당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동맹이 중국에게 효율적인 수단이 아님을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중국은 소련과 동맹 결성 당시 소련에게 기대했던 동맹국의 원조 및 지지를 충분하게 얻지 못했음은 물론심지어 외부의 위협을 제거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소련은 중국의 주적인미국과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데만 주력을 다했으며 1960년대 후반에는중·소 간 무력충돌까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중·소 동맹은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했으며 이러한 동맹 와해의 경험은 중국이 재차 동맹을 맺지 않게 되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인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소련의 해체와 함께 냉전이 종식되었으며 중국은 소련을 대신하여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게 됐다. 탈냉전 시기 중국은 두자리 수의 성장세를 유지했고 이로 인해 중국은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됐다. 오늘날 강대국으로 불리고 있는 중국은 1984년 선언한 '동맹 불체결'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자국의입장을 밝힐 때 지속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과 동맹을 결성할 경우 우위를 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소국들과 여전히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지 않고 있다. 약소국에 비해 강대국이 동맹 파트너로부터 주권 침해를 받을 가능성은적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동맹의 구조상 약소

국에 의해서 강대국의 주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즉 중국이 자국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미국과 동맹을 결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다른 약소국들과도 동맹을 맺지 않는 가장 주된 원인은 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국가적 특징 때문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동맹 와해의 경험은 중국에게 동맹의 이익이 한시적이며 비효율적이라는 교훈을 제공했다. 즉 동맹은 동맹 파트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동맹 파트너가 처한 상황 및 동맹국 간 관계의 변화에 따라 동맹국간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지니고있다. 따라서 중국은 오늘날 유지되고 있는 동맹체제가 냉전시기의 것과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는 자국이 원하는 이익을 촉진시키거나 평화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즉 중국은 기본적으로 주권 수호에 대한 매우 강한 의지가 있다는 국가의 특징으로인해 정치적 측면에서 동맹을 고려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게다가 동맹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자국의 능력만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극심한 안보적 위협에 처해있는 등 동맹 파트너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한상황이 아니라면, 과거 동맹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적었고 동맹 와해의경험을 가진 국가가 동맹을 결성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요약컨대 중국의 동맹 불체결은 거시적 전략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과거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인식들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있다. 중국의 주권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는 아편전쟁 이후 약 100년 동안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외세의 침략과 함께 반식민지를 겪으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중국은 '주권'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주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외정책을 펼쳐나가길 원했다. 자국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중국은 소련과 동맹을 결성했지만 동맹국과의 밀월기는 오랜 기간 유지되지 못했다. 게다가 중국은 소련으로부터 주권을 침해당함과 동시에 동맹의 틀에서 보호받지도 못했다. 결국 주권수호의 강한 의지를 보이는 중국은 동맹 파트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동맹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맹 불체결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연구의 함의

지금까지의 내용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중국 동맹 불체결의 요인을 밝힘으로써 중국이 가장우선시하는 국가이익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은 건국 이전 아편전쟁을기점으로 강대국들의 침략과 반식민지 지배를 경험하면서 국가의 주권을수호하지 못했다. 중국인들은 이를 '백년국치(百年國恥)'라고 부르며오늘날까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권 수호를 가장중요한 국가의 이익으로 여기며, 이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동맹을 결성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동맹 불체결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안보분야의 중국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과거 동맹의 와해를 겪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동맹으로부터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손해는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 결과 오늘날 '동맹 불체결'의 원칙을 기반으로 삼아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사적으로는 긴밀히 협력하되 자국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과거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및 인식과 관련하여 함의를 도출해 낼수 있다. 동맹 불체결은 어느 국가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인식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국가마다 상이한 역사, 능력, 지리적 환경 및 국내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항상 동일한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동맹조약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일정 부분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보장되어야할 국가의 독립성이 의도치 않게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은 강대국이라면 정책결정에서 독립적인 능력을 지녀야 하며 타국에 의해 자국의 의견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왔다. 즉 국제체제의 한 "극(極)"인 국가와 강대국의 차이

는 이와 같은 독립적인 능력 보유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판단한다. 동맹은 결국 국가의 자주적인 정책결정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극체제의 한 극이 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동맹을 결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동맹 불체결은 강대국이 되기위해 노력하는 중국의 다양한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시해 준다. 우선 중국은 소련과 동맹 결성 당시 약소국이었던 것과 달리 1990년대 이후 미국과 국력의 차이를 점차 좁혀오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강대국이 되었다. 물론 중국이 강대국인가에 따른 평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분명 중·소 동맹조약을 체결 하던 1950년의 중국과는 다른 모습인 것은 분명하다. 중국은 강대국으 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제로서의 동맹 결성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지 중국 대외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현재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북한과 관련하여 중·북 동맹의 동학을 살펴볼 필요성이 제시된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정치체제특성상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한적이지만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및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고려했을 때 중·북 동맹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임에 틀림없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동맹관계인지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문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두 국가의 동맹 체결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필자가 자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중·소 동맹과 달리중·북 동맹의 체결과정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았다. 최근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들과 중국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거 외교문서가 조금씩 공개되고있다. 이와 관련된 외교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중·북 동맹에 대해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전반적인 중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외적균형을 취하지 않고 있는 중국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 봐야 할 것이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현대식 무기들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비 예산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 만큼 이를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 안보분야의 연구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제정세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중국 대외정책에 대한 연구는 자료 접근과 관련하여 한계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해 중국의 동맹 불체결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 좀 더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정부 문서 및 중국 지도자들의 회고록 등을 참고했지만 중·북 동맹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중국이 공식적으로 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중국이 타국간의 동맹결성 시도조차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동맹결성에 실패한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주권과 관련하여 약소국과의 관계,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의미가 분명 상이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이러한 개념의 차이를 뚜렷하게 보여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좀 더 다양한 1차 문헌들을참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중국의 동맹 불체결정책이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펼치는 것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성을 제시해본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1) 영문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3.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 (FRUS). Vol. X, part 1. Washington, D.C.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9–1976. VOLUME XVII, CHINA, 1969–1972.

2) 중문

薄一波. 2008. 『若干重大決策與事件的回顧』 , 北京: 中共黨史出版 計.

陳雲. 1995. 『陳雲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鄧小平. 1993. 『鄧小平文選(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_____. 1993. 『鄧小平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江澤民. 2006. 『江澤民文選(第一卷)』. 北京: 人民出版社.

江澤民. 2006. 『江澤民文選(第二卷)』. 北京: 人民出版社.

江澤民. 2006. 『江澤民文選(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毛澤東. 1991. 『毛澤東選集(第四卷)』. 北京: 人民出版社.

毛澤東. 1996. 『毛澤東文集(第七卷)』. 北京: 人民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79. 『中華人民共和國 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 第二次會議文件』. 北京: 人民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82. 『全面開創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新局面--在中國共產黨第十二次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83. 『朱德選集』.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統一戰線工作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 著. 1984. 『周恩來統一戰線文選』.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96. 『十四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冊)』.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1997.『周恩來軍事文選(第四卷)』.北京: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8. 『周恩來年譜』.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9. 『毛澤東文集(第六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1999. 『毛澤東文集(第七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9. 『毛澤東文集(第八卷)』. 北京: 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2002. 『十五大以來重要文獻選編(上冊)』. 北京:人民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4. 『鄧小平年譜(1975-1997)』.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央檔案館 (編). 2005. 『建國以來劉少奇文稿 (第一冊)(1949.7~1950.3)』.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央檔案館 (編). 2008. 『建國以來劉少奇文稿 (第五冊)(1953.1~1953.12)』.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央檔案館 (編). 2008. 『建國以來劉少奇文稿 (第七冊)(1955.1~1955.12)』.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2008. 『建國以來劉少奇文稿(第五卷)』.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 中華人民共和國外交部,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94. 『毛澤東外交文選』. 北京:中共文獻出版社.
- 周恩來. 1984. 『周恩來選集(下卷)』. 北京: 人民出版社.

2. 단행본

1) 영문

- Carlson, Allen. 2005. *Unifying China, Integrating with the World: Securing Chinese Sovereignty in the Reform Era.*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a, Victor D. 1999.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Deng, Yong Deng and Wang, Fei-Ling (eds.). 1999. *In the Eyes of the Dragon: China Views the World*.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Finkelstein, Marina S. and Finkelstein, Lawrence S. (eds.). 1966. *Collective Security*. San Francisco: Chandler Publishing Company.
- Goncharov, Sergei N. Lewis, John W. and Xue Litai. 1993.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ndel, Michael. 1981. Weak States in International System. London: Frank Class and Company Limited.
- Kuo, Mercy A. 2001. Contending with Contradictions: China's Policy toward Soviet Eastern Europe and the Origins of the Sino-Soviet Split, 1953–1960. Lanham: Lexington Books.
- Pressman, Jeremy. 2008. Warring Friends: Alliance Restraint in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nyder, Glenn H. 1997. *Alliance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alt, Stephen M. 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Zhai, Qiang. 2000. *China and the Vietnam Wars, 1950-1975.*Car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Zubok, V.M. and Pleshakov, Konstantin. 1996. *Inside the Kremlin's Cold War: From Stalin to Khrushchev.*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 중문

- 迪特·海茵茨希 著, 張文武, 李丹琳 等譯. 2001. 『中蘇走向聯盟的艱 難歷程』. 北京: 新華出版社.
- 劉德喜. 2005. 『從同盟到夥伴:中俄(蘇)關係50年』. 北京:中共黨史出版社.
- 劉樹發 主編. 1995. 『陳毅年譜(下)』. 北京: 人民出版社.
- 劉曉 1998. 『出使蘇聯八年』.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 齊鵬飛 主編. 2010. 『中國共產黨與當代中國外交(1949-2009)』. 北京:中共黨史出版社.
- 錢其琛 著. 2003. 『外交十記』.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沈志華. 2009. 『蘇聯專家在中國(1948-1960)』. 北京: 新華出版社.
- 沈志華,李濱 主編. 2010. 『脆弱的聯盟:冷戰與中蘇關係』.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沈志華. 2011. 『中蘇關係史綱: 1917-1991年中蘇關係若干問題再探討』.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王泰平 主編. 1998. 『中華人民共和國外交史 1957-1969(第二卷)』.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 吳冷西. 1999. 『十年論戰: 1956-1966 中蘇關係回憶錄』. 北京: 中

央文獻出版社.

- 夏征農, 陳至立. 2011. 『辭海』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 楊奎松, 2008. 『毛澤東與莫斯科的恩恩怨怨』, 江西: 江西人民出版社,
- 葉自成. 2001. 『新中國外交思想: 從毛澤東到鄧小平--毛澤東,周恩來,鄧小平外交思想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辭典編輯室(編). 2005. 『現代漢語辭典』. 北京: 商務印書館.

3) 국문

- 강성현. 『21세기 한반도와 주변 4강대국』. 서울: 가람기획.
- 고미 요우미 지음, 박종철, 정은이 옮김. 2011. 『중국은 북한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서울: 코인미디어.
- 김세균 (편). 2006. 『북한체제의 형성과 한반도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용구. 2006.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현수, 이민효. 2005. 『현대국제법』. 서울: 연경문화사.
- 대한민국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1. 『국방조약집(제1집)』.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모리 카즈꼬 지음, 김하림 옮김. 1990. 『중국과 소련: 그 300년의 역사 그리고 사회주의는 재생할 것인가』. 서울: 사민서각.
- 바르바라 바르누앙·위창건 지음. 2007. 『저우언라이 평전』, 서울: 베리타스북스.
- 서대숙 (편). 2004.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I (조선로동당)』.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 이종석. 2000.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서울: 중심.
- 정인섭. 2012.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개정판)』. 서울: 박영사.
- 정재호(편). 2011.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엮음. 2002.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 서울: 아카데미아 리서치.
- 조영남. 2009.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지속",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서울: 나남.
- 최명해. 2009. 『중국-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3. 논문

1) 영문

- Altfeld, Michael. 1984. "The Decision to Ally: A theory and Test."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37, No. 4.
- Bearce, David H., Flanagan, Kristen M. and Floros, Katharine M. 2006. "Alliances, Internal Information, and Military Conflict Among Member-Sta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0, No. 3.
- Chambers, Michael R. 2000. Explaining China's Alliances: Balancing against Regional and Superpower Threats, Ph. D.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 Chen, Jian. 1992. "The Sino-Soviet Alliance and China's Entry into the Korean War." CWIHP Working Papers, No. 1.
- Chung, Jae Ho. 2011. "Decoding the Evolutionary Path of Chinese Foreign Policy." *East Asia*, Vol. 28, No. 3.
- Chung, Jae Ho. and Choi, Myung-hae. 2013. "Uncertain Allies or Uncomfortable Neighbors? Making Sense of China-North Korea Relations, 1949-2010. *The Pacific Review*, Vol. 26, No. 3.

- Dittmer, Lowel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 Dong Wang. 2005. "The Quarrelling Brothers: New Chinese Archives and a Reappraisal of the Sino-Soviet Split." *CWIHP Working Papers*, No. 49.
- Dwivedi, Sarita. 2012. "North Korea-China Relations: An Asymmetric Alliance." *North Korean Review*, Vol. 8, No. 2.
- Horelick, Arnold L. 1974. "The Soviet Union's Asian Collective Security Proposal: A Club in Search of Members." *RAND Paper*, P-5195.
- Hung, Nguyen Mahn. 1979. "The Sino-Vietnamese Conflict: Power Play among Communist Neighbors." *Asian Survey*, Vol. 19, No. 11.
- Jackson, Robert H. 1999. "Sovereignty in World Politics: A Glance at the Conceptual and Historical Landscape." *Political Studies*, Vol. 47, No. 3.
- Ji, You. 2001.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0, Issue. 28.
- Krasner, Stephen D. 2001. "Rethinking the Sovereign State Model."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7, No. 5.
- Leeds, Brett Ashley Leeds and Mattes, Michaela. 2007. "Alliance Politics during the Cold War: Aberration, New World Order, or Continuation of History?"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s*, Vol. 24, No. 3.
- Leeds, Brett Ashley and Savun, Burcu. 2007. "Terminating Alliances: Why Do States Abrogate Agreements?" *The Journal of Politics*, Vol. 69, No. 4.
- Morrow, James. 1991. "Alliances and Asymmetry: An

-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 Reiter, Dan. 1994. "Learning, Realism, and Alliances: The Weight of Shadow of the Past." *World Politics*, Vol. 46, No. 4.
-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 36, No. 4.
- Snyder, Glenn H. 1990. "Alliance Theory: A Neorealist First Cut."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4, No. 1.
- Tahir-Kheli, Shirin. 1978. "Chinese Objectives in South Asia: "Anti-Hegemony" vs. "Collective Security." *Asian Survey*, Vol. 18, No. 10.

2) 중문

陳樂民. 1992. "國際合作與主權." 『世界知識』, 第5期.

方海平. 2009. "論鄧小平"獨立自主,不結盟"外交戰略的創新." 『世紀橋』,第6期.

郝遙. 2011. "毛澤東決策中蘇同盟." 『湘潮』, 第9期.

馮昭奎. 2001. "日本: 戰略的貧困." 『世界知識』, 第7期.

高正禮. 2003. "鄧少平與中蘇論戰." 『黨史研究資料』, 第7期.

郭偉偉. 1999. "論新時期不結盟的外交戰略." 『四川黨史』, 第2期.

李寶俊. 1998. "黨的十日屆三中全會以來中國外交的特點." 『教學與研究』,第11期.

- 李才義. 2002. "20世紀80年代中國外交政策調整與現代化建設關係淺 論." 『黨史研究與教學』,第6期.
- 李久林. 2004. "毛澤東與 "另起爐灶"的外交戰略理論和實踐." 『北京工業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期.
- 劉愛華. 2002. "關於中蘇關係的歷史思考." 『內蒙古大學學報(人文

- 社會科學版)』,第6期.
- 劉克明. 2000. "中蘇關係40年的歷史教訓." 『東歐中亞研究』,第1期.
- 變景河,李福生. 2004. "《中蘇友好同盟條約》與《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之比較." 『當代中國史研究』,第2期.
- 馬敍生. 2000. "結盟和對抗都不好: 80年代的中蘇關係." 『世界知識』,第12期.
- 孟慶英. 1995. "鄧小平處理對外關係的策略." 『山西師大學報(社會科學版)』,第3期.
- 龐朕,楊鑫宇. 2008. "從同盟到夥伴:中朝關係的歷史演變." 『重慶社會主義學院學報』,第3期.
- 任晶晶. 2012. "20世紀90年代中期以來中國新安全觀的理論與實踐." 『理論學刊』,第1期.
- 沈志華. 2004. "援助與限制: 蘇聯與中國的核武器研制 (1949-1960)." 『歷史研究』,第3期.
- 沈志華. 2005. "1958年炮擊金門前中國是不告知了蘇聯." 『黨史博 覽』. 第1期.
- 沈志華. 2010. "炮擊金門: 蘇聯的應對與中分岐蘇." 『歷史教學問題』,第1期.
- 沈志華. 2007. "中蘇同盟破裂的原因和結果." 『中共黨史研究』,第 2期.
- 沈志華,李丹慧. 2012. "結構失衡:中蘇同盟破裂的深層原因." 『探索與爭鳴』,第10期.
- 覃軼珊. 2009. "新中國外交聯盟觀的調整及其當代啓示." 『江西科技師範學院學報』, 第10期.
- 陶常梅,李曉光. 2006. "'一條線'外交政策下的中朝關係." 『安徽 教育學院學報』,第5期.
- 田居儉. 1997. "維護主權和領土完整的嚴正鬪爭 從《雅爾塔協定》 到《中蘇友好同盟互助條約》." 『當代中國史研究』. 第1期.
- 吳獻斌. 2000. "中國安全戰略的特點及其成效." 『當代亞太』. 第8期.

- 吳興唐. 2012. "國際形勢動蕩多變下中國外交應堅持"三不"原則." 『當代世界』,第4期.
- 謝靑, 杜麗娜. 2002. "論鄧小平獨立自主和平外交政策的思想." 『河南教育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
- 額永琦. 2009. "從結盟到不結盟: 20世紀80年代初中國外交政策調整背景探析." 『黨史研究與教學』, 第2期.
- 翟東昇. 2007. "不對稱相互依賴——中蘇,中越同盟反思之一." 『IT經 理世界』. 第10期.
- 章百家. 2000. "從"一邊倒"到"全方位"——對五十年來中國外交格局演進的思考." 『中共黨史研究』, 第1期.
- 張景全. 2006. "結盟對國家崛起,發展的影響: 以日本爲例的歷史分析" 『日本學刊』. 第3期.
- 張明明. 2012. "十一屆三中全會後中國對外政策的調整." 『國際關係學院學報』. 第1期.
- 張竹雲. 2001. "試論中國對不結盟戰略的新發展." 『長春師範學院學報』. 第4期.
- 章一平. 2002. "20世紀80年代以來中國外交的戰略性調整." 『深川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6期.
- 周承超,陳琲,朱超南. 1997. "獨立自主是鄧小平對外戰略的脊梁." 『理論建設』,第5期.
- 朱聽昌,宋德星. 1999. "論改革開放以來中國獨立自主和平外交政策的新發展." 『世界經濟與政治』. 第2期.

4. 신문 및 인터넷 자료

1) 신문

『光明日報』

『環球時報』

『解放軍報』

『人民日報』

『동아일보』

『朝日新聞(夕刊)』

2) 잡지

沈志華, 2013. "長波電臺和"共同艦隊"風波再解讀." 『中國新聞週刊』, 第2期.

楊成緒. 1999. "獨立自主和平外交政策的豊碩成果." 『瞭望新聞週刊』,第41期.

3) 인터넷 자료

CCTV. 『中蘇外交檔案解密』. 웹사이트 http://tv.cntv.cn/videoset/C40164

Gibler, Douglas. Correlates of War Project. *Alliances*. 1816-2012. Version 4.1 (2013). 웹사이트 http://www.correlatesofwar.org/

Leeds, Brett Ashley. The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ATOP) Project. 2005. 웹사이트 http://atop.rice.edu/data

Wooley, John and Peters, Gerhard.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www.presidency.ucsb.edu/sou.php

국무원 역대 정부공작보고(1954-2013년)

 $http://www.gov.cn/test/2006-02/16/content_200719.htm$

전국인민대표대회 역대 회의 데이터 베이스 http://news.xinhuanet.com/ziliao/2003-01/18/content_695280.htm

중국공산당 역대 전국대표대회 데이터 베이스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index.html

4) 웹사이트

신화통신사(新華通信社) 신화왕(新華罔) 웹사이트

http://www.xinhuanet.com/

전국인민대표대회 웹사이트 http://www.npc.gov.cn/

중국공산당신문 http://cpc.people.com.cn/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웹사이트 http://www.mod.gov.cn/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웹사이트

http://www.fmprc.gov.cn/mfa_chn/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웹사이트 http://www.gov.cn/

Abstract

Analysis on Factors of China's Non-alliance:

Protection Sovereignty and Past Alliance Experience

Kahee Park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ain why China have not aligned with any country. Most great powers forged alliance that regarded as a universal phenomenon in international politic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hina in 1949, China aligned with both Soviet Union and North Korea. These aspects appeared by announcing the so-called 'independent and autonomous diplomacy' in 1982 and 'non-alliance' in 1984. This study analyzed on Sino-Soviet alliance and Sino-North Korean alliance.

The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 was signed on February, 1950. In July, 1961, when

the China and the North Korea signed a treaty of friendship, cooperation and mutual assistance. From that time onward China have not aligned with any country which aspects could confirmed through the official document of China's National People's Congress or White Paper on China's National Defense.

Two factors can be identified for China's non-alliance. First, China has a strong will to protect their sovereignty and thus China is very hesitant to sign an alliance treaty. When it comes to forming an alliance involved party countries in the alliance will have a certain mechanism to influence on domestic policy makings. This will be more distinct in asymmetrical alliance relations. In Chinese perspective, Sino-Soviet alliance was the one which severely interfered China's sovereignty, which can be clearly indicated in utterance of China's sovereignty, which can be clearly indicated in utterance of Chinese politicians'. In this research, China's strong will to protect their sovereignty is shown both in frequency of utterance and contents analysis of it, by closely analyzing the official document of National Congress of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econd factor in China's non-alliance is the experience of collapse of the alliance. Sino-Soviet alliance collapse is one of representative examples of it. Most of alliance almost inevitably brings alliance dilemma: not only cannot a nation in alliance with another receive enough support in international conflict or security, but also it cannot get rid of external threats completely. Additionally, experience of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s with Soviet Union made China perceive alliance is not an efficient mean to defend against hostile country or improve status of na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Closely observing the factors of China's non-alliance gives certain implication, though parti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with its weaker status than that of China, has lower probability to interfere China's sovereignty. China did not experience any entrapment or abandonment with/from North Korea. These two factors explains why North Korea—China alliance is still in effect.

A nation with a definitely strong will go guard their sovereignty such as China shows low probability to form an alliance which would interfere its sovereignty unless faced with critical threats. Especially when a nation already has a great deal of experience of alliance collapse, the lesson they had learned would have had lingering effects in their policy making, reducing the incentive to go into alliance treaty. With sovereignty interference problem and alliance dilemma unresolved, China is highly unlikely to commit themselves to non-alliance principle.

Keyword: China, non-alliance, Sino-Soviet alliance, Sino-North Korea alliance, sovereignty, collapse of the alliance

Student Number: 2010-23049